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책임 연구자 : 서 미

공동 연구자 : 천희선

이혜민

윤민지

김승윤

안지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감수 및 자문 : Ronn Johnson(University of San Diego)
Judith Tindall(National Association of Peer Program Professionals)
Christopher Sink(Seattle Pacific University)

청소년상담연구 178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트레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인 쇄 : 2014년 12월
| 발 행 : 2014년 12월
| 발 행 인 : 권 승
|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95 / F. (051)662-3006
<http://www.kyci.or.kr>
| 인 쇄 처 : 전우용사촌

〈비매품〉

ISBN 978-89-8234-543-2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트레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책임연구자: 서미 ; 공동연구자: 천희선, 이해민, 윤민지, 김승운,
안지영.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78)
권말부록: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지 등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543-2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교포[僑胞]
상담 프로그램[相談--]
334.3-KDC5
362.7-DDC21
CIP2014035526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 이민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외거주 청소년 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교포는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로 한국의 국제화 역량이 뻗어나가는데 기여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거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자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부모세대 문화와의 갈등, 다문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내외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해외교포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및 정체성 혼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다문화 유능감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당성 있는 내용 구성을 위해 또래상담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및 해외교포 청소년·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및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샌디에고 및 시애틀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분야 해외학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외교포 청소년을 위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지도자 지침서 2종(영어, 한국어), 청소년 웹교재(영어) 및 워크시트(영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터뷰 및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해외교포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셨던 미국학교상담학회 편집장이자 시애틀대학교수인 싱크 박사님, 미주또래상담전문가 협회 턴달 회장님, 샌디에고 대학 존슨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애틀 대학 천희선 교수님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권 승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현재 700만명이 넘는 해외교포가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해외교포들은 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정체성의 혼란 등 다양한 심리내외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재외 교포 청소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거주 국가에서 태어난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갖고 있는 문화와 거주국가 문화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겪는다. 더불어,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부정적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과 함께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교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문화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친구, 이웃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 해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이라는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또래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친구를 도와주는 본원의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국내 여러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 의사소통 능력 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외교포 청소년의 경우 유사한 문화 배경과 가족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적응문제를 예방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길러주어 다문화 유능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또래상담 역할모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고,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과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과 이들을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는 기획단계의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구성 원리를 도출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초안을 바탕으로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과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고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도출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한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또래상담자의 다문화 유능감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셋째, 또래상담자 역할 세 단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해외교포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멘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섯째, 또래상담자 역할 세 단계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훈련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단계에 따라 또래상담자들이 실제 활동하며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20명의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효과성 평가를 위해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실시전후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결과,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회기 및 종합평가를 포함하는 참여자 관점평가에서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90%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며, 75%이상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와 의견을 분석하고, 관련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국외거주 청소년 부적응 문제를 돕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외국학자들과 연구협력, 자문 및 외국대학의 IRB 승인 등을 통해 해외교포 사회와 학교 등 해외 보급에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외 지역의 해외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 각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역 사회, 학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CONTENTS

I. 서론 _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 과제 3

II. 이론적 배경 _ 4

- 1. 해외교포청소년의 문화적응 4
- 2. 해외교포청소년 조력 프로그램 6
- 3. 또래상담 프로그램 8
- 4.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 12

III. 연구방법 _ 13

- 1. 프로그램의 개발 13
- 2. 프로그램 평가 49

IV. 연구결과 _ 55

-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55
- 2.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평가 58
-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61
- 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62

V. 요약 및 논의 _ 67

- 1. 연구 요약 67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71

| 참고문헌 _ 74

| 부록 _ 79

1.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지	81
2. 해외교포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83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사후)	86
4. 프로그램 평가지	91
5. 연구 참여 동의서(보호자용)	93
6.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95

| ABSTRACT _ 97

CONTENTS

| 표목차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16
표 2.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가 지각하는 해외교포 청소년의 고민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18
표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27
표 4.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내용분석	29
표 5.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모형	44
표 6.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내용	45
표 7. 연구 설계	49
표 8.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6)	50
표 9.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속인종(N=36)	51
표 10.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언어 유창성 정도(N=36)	51
표 11.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가정 내 사용 언어(N=36)	51
표 12. 측정도구	52
표 13.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53
표 14.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53
표 15.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54
표 16. 집단별 대인관계 반응성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55
표 17. 집단별 다문화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56
표 18. 집단별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57
표 19. 시범운영 참여청소년의 종합평가 결과(단위 : 명)	59
표 20. 프로그램 추천의향 평가 결과(단위 : 명)	59
표 21.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객관식)(단위 : 명)	60
표 22.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주관식)(단위 : 명)	60
표 23. 수정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64

| 그림목차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14
그림 2. 효과크기 측정 공식	54
그림 3.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반응성 점수 사전 사후 평균변화	56
그림 4. 집단에 따른 다문화 자기효능감 점수 사전 사후 평균변화	57
그림 5. 집단에 따른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점수 사전 사후 평균변화	58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대사회 세계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국외 이민 수는 증가해왔으며, 2007년 이후 700만 명이 넘는 해외교포가 180여개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3). 이러한 현상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국의 국제화 역량을 뺏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해외 교포들은 새로운 언어와 생활방식 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Lee, Moon, & Knight, 2004), 우울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Portes & Rumbaut, 1996). 청소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언어 적응 및 생활방식, 문화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문화 적응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언어나 거주 국가 문화에 대한 어려움이 덜한 재외 교포 2세에게도 가정의 문화와 사회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재미교포의 경우 가장 높다는 보고는(Hurh & Kim, 1990) 재미교포 청소년 적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미교포는 전체 해외 교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재외동포재단, 2010) 백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10). 그러나 재미교포의 우울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필리핀,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계 이주민 가운데 거주국에 비해 높고(Kuo, 1984, 유채영, 이주경, 2012에서 재인용) 그 정도가 일반 미국인들의 우울 유병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rnstein, Park, Shin, & Park, 2009). 이러한 우울은 가정폭력, 약물중독 등의 외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미교포 가정 폭력 신고 건이 아시아계 이민족 중에서 가장 많으며,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점(YWCA, 2004)은 재미교포 가정에 대한 도움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교포의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는 문화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박형원, 2010; 원영희, 2005; 이진숙, 데지레 친, 2011; Choi, 1997; Park & Bernstein, 2008; Park

& Rubin, 2012),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 간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언어, 생활방식, 문화정체성, 그리고 태도 등의 변화이다. 문화적응 경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적응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Miller & Chandler, 2002).

재외 교포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를 통해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박소라, 2008). 거주 국가에서 태어난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언어도 부모의 모국 언어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에 더 익숙하다. 반면, 가정에서는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가정의 문화와 가정 밖 사회 문화의 불일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가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 어떤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미국 교포 청소년의 경우 백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로 인해 언어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도 주류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문성준, 2008).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에서 갖는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낮은 자아정체성 및 낮은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다(Erikson, 1968; Phinney & Charvia, 1992; Tajfel, 1981).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의 수용은,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겪는 차별과 더불어 교포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고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Sue & Sue, 2008). 안타까운 것은, 교포 청소년과 같은 이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소수 민족의 문화 및 가치를 이해하는 다문화 상담가들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Jang, Chiriboga, & Okazaki, 2009; Shea & Yeh, 2008).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최근 교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Natural Helpers Model(NHM)이 제기되고 있다(Sue, Cheng, Saad, & Chu, 2012). Natural Helper는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도움과 조언을 해준다. NHM 모형은 같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준다는 점에서 국내의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대인관계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친구에게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게 되고, 또래라는 동질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Erikson(1968)의 청소년기 특징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또래 간 상담 모형이다. 해외 교포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이고 같은 문화권을 가진 또래 청소년 간 유대감이 높다는 점(Noh & Avison, 1996)에 비추어 볼 때,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해외교포 청소년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적응 과정에서 한국 문화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청소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부심이 높다는 점(Kim, 1994)에서 한국 청소년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20여 년간 운영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교포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문화 연구 분야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다른 가족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함은 물론, 자기 가족 문화의 장점, 자원, 자산을 인정하는 능력인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킴으로 다문화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보고되는 바(강기정,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Patterson, 2007), 솔리언또래상담은 교포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외교포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기술 함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건강을 도와 궁극적으로 교포 사회 내 건강한 공동체문화 확산 및 다문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과제

연구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또래상담 역할모형에 기반을 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확정짓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외교포청소년의 문화적응

201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섯 명 중 한 명은 이민 1세대이거나 2세대에 속하며 특히나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25% 정도가 이민을 통해 정착한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계 교민은 아시아계 교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룹으로 인구조사 당시 백만명이 훨씬 넘는(1,706,822명) 교민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S. Census Bureau, 2010).

최근 이민자들의 수와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이민자들이 겪는 독특한 문제와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뤄져왔다. 특히 교포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는 과도기적인 시점으로 자아관이나 자아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전형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혼동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이민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민 청소년은 '강제학습증후군(Hurried Child Syndrome)'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이민청소년들이 부모가 거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문화적 브로커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일례로, 자녀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 일세대 부모님을 대신해서 은행이나 정부 공공 기관과 소통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포 청소년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누릴 수 있는 탐험과 모험의 여유 없이 빨리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Fong, 2004). 게다가, 이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차별과 소소한 학대(microaggression)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어느 그룹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감과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Sue & Sue, 2008).

이러한 내적 그리고 외적 어려움들은 현재 여러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외적으로는 알콜이나 약물 혹은 게임 중독, 그리고 여러 폭력적인 문제로 표출되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불안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질환, 그리고 가족 내의

대화단절과 갈등 및 불화 등을 들 수 있다.

교포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문제는 청소년기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의 개인은 급격한 신체변화, 성적 충동과 이성애에 대한 관심,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시기다(소수연 외, 2013). 더불어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혼란을 느낀다. Piaget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은 이상적인 미래와 변혁을 꿈꾸며 자기 생각에 무한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Rice & Dolgin, 2009).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기존사회의 제도와 관습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자기 가치와 맞지 않는 것들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김승윤, 2011). 이러한 특성은 교포 청소년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재미교포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종적 차이로 인해 느끼는 위기와 분열, 부모세대와의 상이한 가치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부족, 그들이 속한 근원문화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길예진, 이순형, 1999; 윤인진, 2000; Berry, 1997).

해외교포 청소년의 경우, 두 가지 문화 사이에서 적응문제를 겪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그들의 심리적 갈등은 부모세대와 공유할 수 없는 문제다. 부모세대는 자신이 속한 근원문화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 자녀의 경우, 근원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정체성이나 적응문제를 겪을 때에는 가족보다도 문화적으로 동일한 혼란을 경험하는 또래들이 중요한 지지체계가 될 것이다. 청소년은 가족의 영향이 절대적인 아동기와는 달리 학교나 방과 후, 여가시간 등을 공유하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다. 캐나다 교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심리적 자원이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이웃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양계 이민자의 경우 친척과 친구들은 중요한 지지 자원임과 동시에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고한다(Noh & Avison, 1996). 또한 국내거주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다룬 연구에서도,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자기 안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수미, 정정은, 2013). 따라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는 또래 친구나 이웃을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해외교포청소년 조력 프로그램

교포청소년이 경험하는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민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여러 다문화 학자들은 ‘정신 건강 격차(Mental Health Disparity)’라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많은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 집단들이 정신질환이나 가족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문인의 치료나 상담을 찾는 경우는 다른 주류집단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변인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Jang, Chiriboga, & Okazaki, 2009; Shea & Yeh, 2008) : (1) 소수민족의 문화, 가치, 언어에 부합하는 서비스나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 상담자의 부족, (2)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와 서비스에 대한 불신,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 (3)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숨기려하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교포청소년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시설, 프로그램, 상담자를 찾기 어렵다.

소수민족이나 인종 청소년의 문제를 서구적 상담 모델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보다 혁신적이며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모델(Natural Helpers Model, NHM)’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Sue, Cheng, Saad, & Chu, 2012). Natural Helpers Model(NHM)은 ‘보다 혁신적이며 지역 사회 참여적 모델’의 대표적 모형이다. NHM은 일정 집단 내에서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도움과 조언을 해주고 있는 이들을(Natural Helpers)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것은, NHM이 기존의 또래상담과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한 구조와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NHM과 또래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공감 및 경청을 통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NHM이 집단에서 자연스럽게(Natural) 이미 생활에서 helper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래상담이 교육을 통해 helper로 양성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HM나 또래상담은 그룹에 소속한 일원으로 그 그룹이 필요로 하거나 어려워하는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상담 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비해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NHM은 대부분 건강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교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및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

서 기술하였듯이, 해외교포 청소년에게 동일한 경험을 가진 또래의 긍정적인 지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바, 해외교포 청소년을 위한 Natural Helper나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은 시급하다.

해외 교포 청소년들에게는 또래지지 및 심리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반면, 미국 내 교포 청소년들이 또래지지를 비롯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이지만, 현재 미국에서 교포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는 공립도서관 서비스, 팀링(Teaming) 프로그램, 멘토(Mentor)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먼저, 미국 공립도서관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서(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2010),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지역정보 제공, 통역 지원, 영어 교육(ESL)이나 시민권 교육(citizenship classes) 제공, 자료나 장비 기부, 교통지원, 인턴십 기회 및 재정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브리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s)은 이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통합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민 온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나 상호작용하며 중요한 정보와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팀링(Teaming)은 학생들이 그들에게 배정된 교사들에게 지도받게 되는 소규모의 조직화된 그룹이다(Caskey, 2010). George와 Alexander에 의하면, 이 팀링의 목적은 학생들이 또래와 교사들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소규모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Caskey, 2010에서 재인용). 팀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팀링을 통하여,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룹 안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소속감, 주인의식 등이 고취되는 것을 경험했다. Caskey(2010)는 이민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형성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특징이 정체성과 의식(ritual)라고 기술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팀링을 통해 3년 동안 이민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자가 있던 것이 그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것은 크나큰 인생 변화를 경험한 이민 청소년들에게 정해진 일과와 안정감을 만들어 주었다고 언급했다(Casky, 2010).

또한, 미국 내 소수인종 청소년이나 난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2014)에서 운영하는 멘토 프로그램이 있다. 멘토 프로그램은 25년 동안 멘토링 영역에서 제공되어 오고 있다. 이민자 및 난민 청소년을 위한 MENTOR 프로그램은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시행한 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의 멘토는 문화적 통역사(cultural translator), 미국 문화에 대한

안내자, 그들 자신 문화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Schineller & Rummell, 2011). 또한, 영어 습득을 위한 도우미, 정서적 지원자, 다양한 정보 조언 및 상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문화적 동화(assimilation)나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모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국 내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들이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언어·학습 지원 및 문화 적응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갓 이민 온 청소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포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적 혼란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한 교포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지가 시급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또래 간에 경청과 공감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교포 청소년들이 부모의 문화와 주류 문화에서 갈등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가. 국외 또래상담 프로그램

또래상담의 개념은 처음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상담전문가의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시작되었다(Mamarchev, 1981). 학교, 대학상담센터, 거주시설, 정신과 클리닉, 지역복지센터, 알콜 및 약물 재활센터, 성 관련 프로그램, 노인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또래상담이 활용되었으며, 수혜 대상자 또한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 수용자, 노인, 비행 청소년, 혜택 받지 못한 청소년,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Mamarchev, 1981).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 1996년도까지 또래상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peer counselor’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으나, 그 후부터는 Heiselt와 White(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peer helper’나 ‘peer mediator’, ‘peer mentor’, ‘paraprofessional counselor’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미국 내 또래상담 교육 내용은 연구자나 지도자에 따라 다양한데, Hamburg와 Varenhorst(1972)가 운영한 또래상담 교육 콘텐츠는 인간에 대한 이해(대인관계), 또래상담 관련 주제, 또래상담 역할의 세부내용(상담 전략과 실습경험)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로 다룬 주제 중 부각이 되는 주제는 ‘가족 문제’로, 이혼 가정에서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 규칙과 문화, 형제간 경쟁, 가족으로부터의 압력과 기대, 가족 내 고립, 가족 안에서

중요한 적응문제, 정서 변화와 성장 및 발달단계, 가정 내 경험되는 자기정체성, 안정감, 칭찬 및 체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 그 당시 미국 현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또래상담자들에게 교육되었다. 이러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1971년에 미국 Palo Alto Unified School District에 있는 3개의 중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 학생들 155명에게 실시되었다.

Mamarchev(1981)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구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또래상담자는 집단상담 회기에서 주로 역할모델의 역할을 수행한다. 발달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상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상담교사나 또래상담자에 의해 집단상담에 들어가게 된다. 또래상담자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촉진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지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또래상담자는 친구들의 효과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학업 어려움의 도움을 위한 적절한 행동의 역할모델로서 활동한다. 중학교의 또래상담자는 서비스 기반 도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주로 학교 상담교사와 지역 정신건강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일한다. 중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을 증진시키고, 학교상담 교사들이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교내에서의 추가적인 서비스 기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홍보, 교사의 지도하에 또래 학습 지원, 신입생에게 오리엔테이션 제공, 교내 활동 계획, 미디어 센터의 보조자, 학교 안내자로서 활동, 그리고 상담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조자로도 활동한다. 고등학교의 또래상담자는 가이던스 상담소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위하여 선발 및 훈련되어지며 청소년들이 과도기를 책임감 있게 겪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고등학교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형식적 및 비형식적인 상담, 건강 교육, 안내 정보, 사회 문제해결 전략, 자기인식 강화, 자기 개념 발달 전략, 스트레스 상담, 진로 선택, 발달적 훈련, 관계기술 훈련, 개인 성장 평가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자들은 대학 정보 제공, 교내 긍정적인 또래 문화 모델링, 또래 리더십 훈련, 진로 계획 및 배치 보조, 심리학 수업 보조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소수인종 청소년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Buck(1977)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인 소수인종 청소년에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들이 생활방식을 향상시키고 직장에서의 행동 및 적응을 위한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도구로 또래상담을 활용되기도 하였다 (Buck, 1977). 이처럼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소수 민족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직 동양계 청소년과 같은 소수민족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동양계 민족이 공동체를 중시하고, 집단 정체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외교포 청소년과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국내의 대표적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는 1994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솔리언또래상담이 있다. 솔리언또래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돕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모토로 개발되어 전국의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동아리나 창의적 체험활동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솔리언또래상담은 또래친구를 통해 현장 밀착형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고 활동한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찾고, 경청과 공감 전략을 사용하여 친구의 고민을 나누며,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통해 친구를 돕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래상담자의 양성교육은 총 11회기로 구성되며 총 12시간~15시간동안 분산 또는 집중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게 되며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의 다양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한다.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청소년 뿐 아니라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 역시 동반 성장하고, 또래상담이 궁극적으로 건전한 또래관계와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프로그램이 개발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솔리언또래상담사업의 발전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주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립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개발된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I : 기본자질 훈련프로그램’(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II : 갈등관리 프로그램’(1995),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III : 좌절관리 프로그램’(1996),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IV : 친구되기 프로그램’(1997),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V : 통합본’(1998)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또래상담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정립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교 급별에 따른 단계별 또래상담 프로그램인 ‘초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중학생용 또

래상담 프로그램(2001)', '고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2003년에는 또래상담자 심화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솔리언또래상담을 기반으로 한 '군솔리언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군으로 확대·보급되었다. 세 번째 단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솔리언또래상담 사업의 확대 운영기로,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의 중·고등학교로 확대 보급되었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예방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2013)이 개발되어 현재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어온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노성덕과 김계현(2004)은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또래상담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36편을 메타분석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36편의 연구에서 추출된 총 157개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한 결과, 평균 효과크기는 1.1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상담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래상담 연구에서 효과성을 보고자 했던 영역은 대체로 대인관계, 자아개념,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학교관련 태도, 진로, 비행 등이었으며 이 중, 특히 학교관련 태도가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자, 또래상담내담자, 학교 차원의 또래상담 효과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상담은 또래상담 양성 훈련을 받아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는 청소년의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 의사소통능력,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친사회적 행동, 자기표현력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주영, 임성택, 2010; 변상해, 김세봉, 2011; 박보라, 2008; 박은정, 2007; 류부열, 2007; 양가영, 2008; 오유하, 2009). 또래상담을 받은 또래내담자에게 있어서는, 또래상담을 받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이 향상되고 학교적응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최혜숙, 2006),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상담이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집단의 또래상담 활동이 해당 학급의 학급원간 응집력과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혜숙, 이현림,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이 교우관계와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을 때, '의사소통', '이해성', '친밀감' 등의 교우관계 지각과 '학급친구에 대한 태도', '학급생활 태도' 등의 학급분위기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남희, 2005).

4.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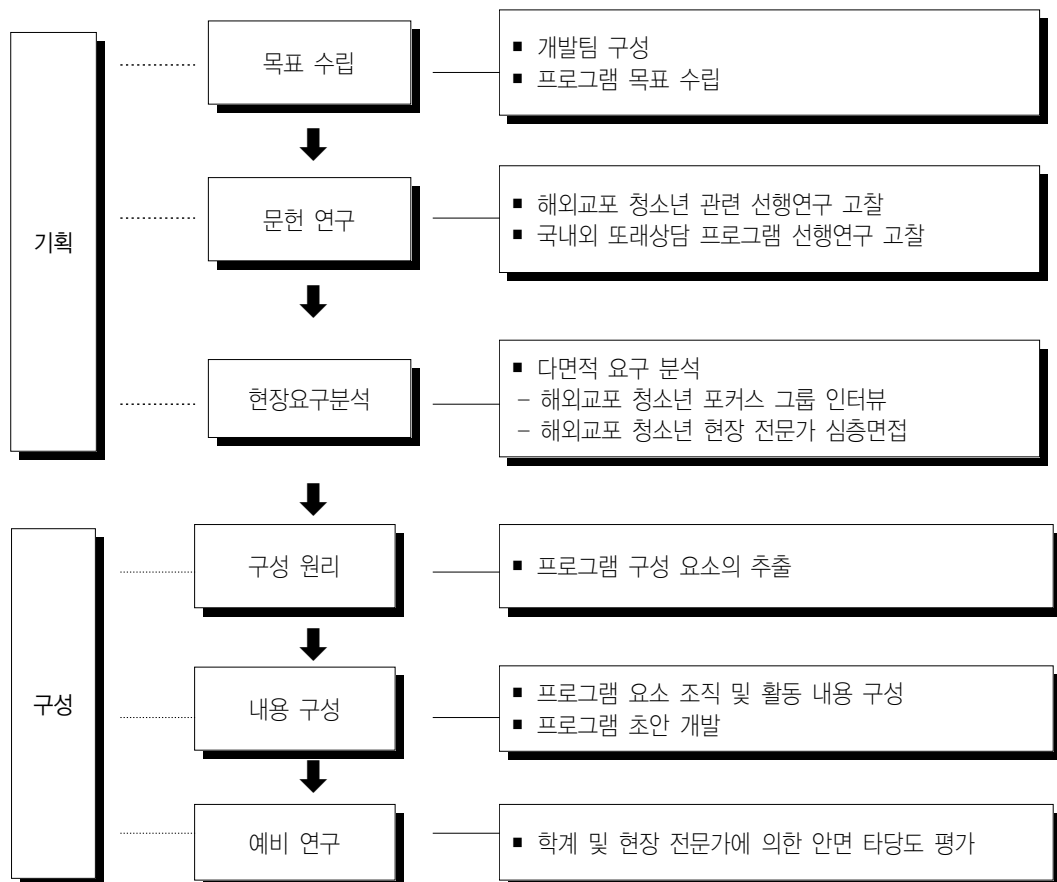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또래상담프로그램을 적용 대상을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확장하는 노력을 하였다. 양미진, 송미경, 신호정 등(2009)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군장병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들은,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군 솔리언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참가자 관점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 장병 총 92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 중 평균 4.46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군솔리언또래상담이 비슷한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에서 구성원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또래상담의 효과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솔리언또래상담은 해외교포 청소년의 환경적응,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형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교포 청소년의 배경적 특수성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원활한 교우관계 형성 뿐 아니라 거주 국가에서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문화적·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의 경우, 비슷한 배경과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래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해외 교포 청소년 가족문화의 근간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근간으로 하고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외 교포 청소년의 부적응문제를 예방하고 문화 유능성(bicultural competence)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 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신을진, 김창대,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과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2008)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개발 범위를 기획 및 구성, 시범운영을 실행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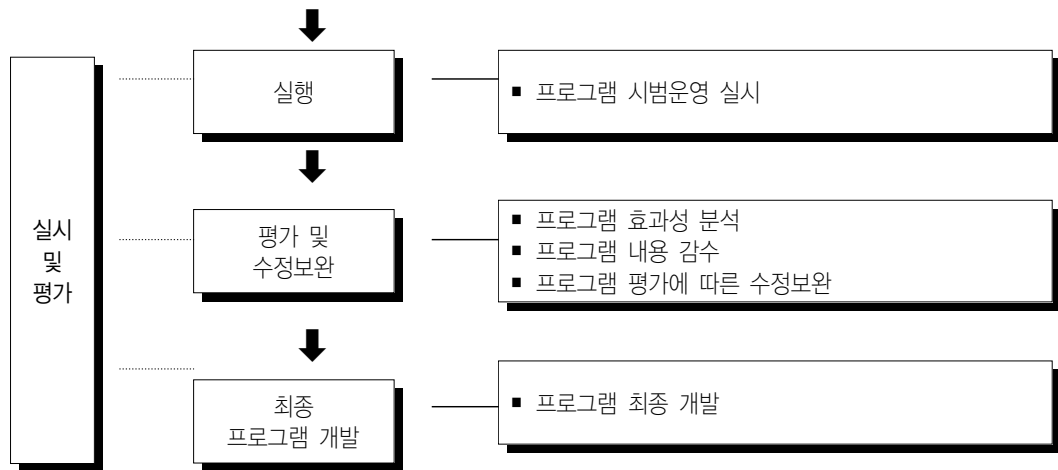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위의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부적응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성을 연구함으로써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둘째, 해외교포 청소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주요 보급지역인 미국에 거주하며 해외교포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와 미국거주경험이 있는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분야 전문가에게 감수 받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추출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지도자용 영어 지침서 및 웹교재, 학생용 영어 워크시트를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을 토대로 해외교포 청소년 2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회기별 평가 및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내용과 효과성 검증 결과, 전문가의 감수 및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 프로그램 지침서와 웹교재의 수정을 통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 기획단계

1)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 및 실태, 해외교포 청소년의 심리적·문화부적응 문제, 해외교포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 국내외 또래지원 프로그램 및 효과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과 차별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앞선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부모, 친구 등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원 체제로서 기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또래간의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문화사회 속에서 해외 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장요구분석 I :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결과

가) 조사 목적

본 연구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청소년을 지도해 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이 적응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 보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보급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며 교포 청소년들을 지도한 현장 전문가 7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포 청소년들이 미국 현지에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보급방안에 대한 구성요소 추출과 실행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나) 면접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교포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셋째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자로서, 교포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심층면접 참여자를 추천받았다.

최종적으로 총 7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직접적으로 재미교포 청소년을 연구하거나 지도한 적이 있었다. 더불어 참여자 중 1명은 교포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으며, 나머지 6명은 모두 미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대상자	성별	연령	미국 거주 기간	연구/지도한 청소년 연령	거주 지역
전문가A	여	30대	1,5년	중, 고등학생	펜실베니아
전문가B	남	40대	5년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로스엔젤레스
전문가C	여	40대	5년 이상	초, 중, 고등학생	시애틀
전문가D	여	40대	5년 이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시애틀
전문가E	여	40대	5년 이상	초등학생	샌디에고
전문가F	여	30대	5년 이상	중, 고등학생, 대학생	샌디에고
전문가G	여	40대	5년 이상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샌디에고

다) 심층면접 질문지의 구성

심층면접 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담을 전공한 박사 2인(국내 1인, 국외 1인), 박사과정 1인, 석사졸업 1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해외교포 청소년을 어느 연령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합의된 해외교포 청소년의 이주 배경(유학생, 주재원 자녀, 이민 등)에 대해 분류하였다. 셋째,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형태로 구성하였다. 넷째,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을 작성한 후, 연구개발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질문형태는 도입질문(opening

question), 주요질문(key question),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라) 자료 수집 과정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은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국내 거주 전문가 3명, 미국 거주 전문가 4명이 참여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현장 전문가의 심층면접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공주시 소재의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전문가 4명은 시애틀과 샌디에고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심층면접 전에는 면접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접 내용은 녹음이 되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현장 전문가 집단은 교포 청소년들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전문가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청소년들을 지도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주로 지도한 청소년과 관련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문제해결방법,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보급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보급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심층면접의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각 인터뷰는 국내 연구진 3인과 국외 연구진 2인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다. 한편 모든 심층면접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지키되, 질문지 내용 이외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진행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등의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는 전사본을 작성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마) 심층면접 내용 분석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과정에서는 전사된 축어록과 현장노트가 활용되었으며, 각각의 자료는 3명의 연구팀이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 각각이 현장 전문가 개인별로 1차 분석을 하여 의미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축어록의 진술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 범주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분석모임에서는 각자가 검토한 의미범주를 상호 검토한 후,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각 자료에 대한 1차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1차 분석모임 이후에는 나왔던 범주 이름을 취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 재범주화 하였고, 이에 대해서

는 2차 분석모임에서 보고하고 함의에 의해 수정하였다. 한편,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는 상담 및 질적분석 전문가 3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바) 분석 결과의 요약

(1)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현장 전문가가 지각하는 해외교포 청소년의 고민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심층면접 분석결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은 크게 ‘교포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고민 해결 창구’, ‘또래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현장 전문가들이 인식한 교포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학업문제, 문화적응의 어려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정체성 혼란, 대인관계 문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한 창구로는 선생님, 한국 교포, 또래 등과 같은 인적자원과 SNS와 단체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매개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스스로 해결하거나 지원체계의 부재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또래가 주는 영향에 있어서는 고민 및 정보공유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과 또래그룹에 속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는 참여자, 프로그램 내용, 보급대상, 보급원리에 있어서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가 지각하는 해외교포 청소년의 고민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대범주	소범주	의미단위	빈도
교포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학업	학업에 대한 부담감	4
	문화적응	이국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5
	부모와의 관계	부모 문화와 주류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8
		부모와 역할역전	3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2
	정체성	자아정체성의 혼란	4
		사회정체성의 혼란	3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3
		따돌림	2
	기타	지지지원(부모, 또래 등)의 부재	3
		물질남용 및 중독	2

대범주	소범주	의미단위	빈도
고민 해결 창구	인적 자원	자기 자신	1
		한국교포	5
		선생님	1
		또래	2
	매개 자원	교회	2
		단체활동 참여	2
		SNS	1
지원 체계 부재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고립	1	
또래가 주는 영향	긍정적인 측면	고민 공유(공감대 형성)	2
		희망감 고취	1
		실질적 정보제공	1
	부정적인 측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 조성	2
또래상담 프로그램 제안	참여자	목회자	1
		멘토	5
		전문가 집단	2
		또래상담자	5
		또래상담 지도자	6
	내용	대화기술	2
		대화를 통한 감정/생각 나눔	3
		다문화 정체성	3
		부모 참여/교육	3
		자기이해	4
	보급대상	교회	3
		한글학교	2
		한국학원	1
		교육지역구 단위	2
		한국 방송매체 활용	1
		청소년 센터	1
	보급원리	대학입학을 위한 혜택부여	2
		접근성	5
		지속성	2
		국제적 연계	1
	기타	제공자 및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1
		자질 확인을 위한 도구 필요	1
		온라인을 통한 지도자간의 교류	1

① 교포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교포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국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부모 문화와 주류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부모와 역할 역전’,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 ‘지지자원(부모, 또래 등)의 부재’, ‘자아정체성의 혼란’, ‘사회정체성의 혼란’, ‘물질남용 및 중독’, ‘따돌림’등이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은 한국문화로 대표되는 부모님의 문화와 학교 및 사회에서 체감되는 주류문화간의 차이에 따른 혼돈과 갈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민 직후에 겪게 되는 이국문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도 많았다. 하지만 전자는 주로 2세나 1.5세대에 해당되는 사례인 반면, 후자는 유학생이나 이민 연한이 짧은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민 연한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과 대학진학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에 있어서는 영어실력에 기인한 것 보다는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현재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인해 대면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한국 부모들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문화와 언어차이로 인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등 청소년에게 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스스로 보는 자기와 타인이 보는 자기가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사회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인종과 언어차이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음주나 마약 등 물질남용 및 중독 문제도 보고하였으며 부모나 또래들로부터 정서적·물리적 지지자원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컬처(high culture)에서 왔어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문화는 로우컬처(low culture)예요. 로우컬처는 뭐냐면, 단도직입적이고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싫다면 싫은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거고. 그러한 로우컬처, 하이컬처 문화 안에서 대응하는 것의 패턴이 다른 것이 굉장히 어려운거죠.”(이국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현장 전문가 B)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텍스트나 이메일, 메시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대일 conversation(대화)이나 메시지 전달이 잘 안돼서 아이들끼리 오해가 많고...”(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현장 전문가 E)

“미국 선생님들은 이만큼 해도 어 너 잘했어 이러는데 여기(한국 문화) 와서는 너 이거이거 안했어. 다음번에 왔을 때 너 안하면 마이너스 포인트야 막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나가니까 애네들이 싫은거야.”(부모 문화와 주류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현장 전문가 C)

“어머니가 이제 언어가 안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도맡아서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힘들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부모와 역할 역전, 현장 전문가 A)

“일단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갈등은 학업이었어요... 이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교육관, 그것들이 아이들과 건강하게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생각으로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으로 여기저기 막 돌리면서 공부만 시키고 인성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고 훈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학업에 대한 부담감, 현장 전문가 F)

“... 1.5세인 경우에는 그.. identity(정체성) 문제. 자기가 한국사람한테도 못 속하고 그리고 미국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identity(정체성) 문제가 제일 심하구요”(자아정체성의 혼란, 현장 전문가 F)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 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죠. 동양에서 오는 사람으로 밖에 보지 않죠... 아무리 본인은 이쪽 문화가 익숙하고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사회정체성의 혼란, 현장 전문가 B)

②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고민해결 창구

현장 전문가가 지각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고민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는 곳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비슷한 문화적·환경적 배경을 가진 ‘한국 교포’이었다. 비록 또래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고민을 공유할 때 가장 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같은 나이대의 또래에게 털어놓는다는 의견과 선생님, 목회자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봉사활동이나 교회활동과 같은 단체 활동이나 SNS에서 친구들의 관심과 댓글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한 경우도 보고하였다. 반면,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청소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문제도 빈번하다고 하였다.

“한국인들만이 이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겪었던 부분도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이 공감 받을 수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한국 교포, 현장 전문가 A)

“교회선생님, 목회자,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외롭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교회를 많이 찾고”(교회, 현장 전문가 B)

“찬양 리더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든 모습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푸는 것 같기도 했어요.”(단체활동 참여, 현장 전문가 A)

“정말 한 pre-teen, 10살, 11살서부터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게 많이 해요.”(또래, 현장 전문가 F)

“여기서 우리 교포 아이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를 너무 많이 봐요. 그 아이가 어느 한 곳이라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다면,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아이가 철저히 고립되어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고립, 현장 전문가 F)

③ 또래가 주는 영향

해외교포 청소년들에게 또래가 주는 영향에 있어서는 고민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신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며,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또래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이로 인해 음주와 같은 일탈행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담을 나눔으로 해서, 또는 어려움을 나눔으로 해서 그 어려움이나 갈등의 무게가 좀 상쇄되겠죠.”(고민공유(공감대형성), 현장 전문가 B)

“그치만 또래 중에서도 그걸 잘 극복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좋았더라, 그러면 자기의 어떤 부담이나 어려움의 무게가 상쇄되는 것과 더불어 희망을 갖죠.”(희망감 고취, 현장 전문가 B)

“이제 조금 일찍 온 아이들은 언어가 잘 되고 미국 문화를 아니까 좀 일대일 개인과외를 하면서 도와주던 아이들도 있었어요.”(실질적 정보제공, 현장 전문가 A)

“가장 인기 많은 아이들 그룹에 끼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 다시 끼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개네들이 하자는 것을,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같이 해서 끼고 싶은 거예요”(소외에 대한 두려움 조성, 현장 전문가 C)

④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크게 참여자, 내용, 보급대상, 보급원리, 기타 의견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④-1. 참여자

참여자에 있어서는 한인교회 목회자나 한인으로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해외교포 청소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통한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래상담자의 자격에 있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성격적인 자질과 어느 정도 언어도 습득하고 미국문화가 어떤지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이 또래상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또래상담 지도자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와 주류문화에 모두 경험이 있고 또래상담자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유학생이나 이민자 중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하는 있는 사람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세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롤모델들을 불러서 자기네처럼 미국 주류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공감이 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멘토, 현장 전문가 C)

“...선생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정신건강 카운슬링이 family marriage therapy(가족상담)쪽에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전문가 집단, 현장 전문가 F)

“이타적인 자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또래상담자, 현장 전문가 A)

“비슷하게 문화적응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현장 전문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경험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든지...”(또래상담 지도자, 현장 전문가 A)

④-2. 내용

해외교포 청소년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면 대화를 통해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의견과 이러한 대화를 통해 대화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를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다문화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아직 부모의 영향력이 크므로 부모 교육과 부모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아정체성이나 정신건강 등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듣고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는 것 자체가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대화를 통한 감정/생각 나눔, 현장 전문가 E)

“요즘 아이들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attention span(주의집중력)이 별로 없기 때문예요, conversation(대화)이나 communication(의사소통)이 거의 끊이지 않는 그런 ability(능력)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전문가 집단, 현장 전문가 E)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나는 한국에 뿌리가 있어... 한글 교육을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역사도 간간히 배워야 해요”(다문화 정체성, 현장 전문가 D)

“부모도 include(참여)하는거. 그렇지만 모든 이런 프로그램을 부모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알고 있고 그리고 서포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서포트가 없다면 참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부모 참여/교육, 현장 전문가 F)

“건강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면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자기이해, 현장 전문가 F)

④-3. 보급대상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속해있는 한인 교회를 통해서 보급한다는 것이었으며 한국학교나 한국학원도 한인들이 많이 모이므로 보급하기에 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라디오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거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청소년 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으며 같은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끼리 연합을 이루어 진행하여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인교회를 많이 나가니까 한인교회를 통해서 보급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 한인교회를 가면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경험...”(교회, 현장 전문가 A)

“미국에 한글학교가 너무 많아요. 한글학교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한글학교, 현장 전문가 C)

“가능하면 학교끼리 자매결연을 맺으면 학교끼리 참관도 해보고...”(교육지역구 단위, 현장 전문가 D)

④-4. 보급원리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보급원리에 있어서는, 학업 및 대학입시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입학을 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이나 교통문제 해결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제적인 연계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admission apply(대학교 입학)할 때 자기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한테 college(대학)을 갈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이해가 되면 college apply(대학교 입학)를 할 때 난 이런 프로그램에서 peer counseling(또래상담)을 한 qualification(경력)이 있었고 참여를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즘 아이들은 college application(대학 입학 원서)이 보기 좋다고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대학입학을 위한 혜택 부여, 현장 전문가 E)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급하게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안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접근성, 현장 전문가 A)

“...지금은 너무 instant(일시적)하기 때문에 뭐를 해도 조금 시간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을만한 것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지속성, 현장 전문가 E)

④-5. 기타 의견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중 기타의견에는 제공자 및 수혜자 자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과 또래상담자로서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지도자간에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target group(대상자 집단)을 정확히 정해줘야 하는 거죠”(제공자 및 수혜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현장 전문가 B)

“설문지 같은걸 만들어서 또래 상담자로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분석을 할 수 있는 tool이 있어야”
(자질 확인을 위한 도구 필요, 현장 전문가 B)

“(트레이너들의)화상회의 중요하죠. 화상회의가 가능하다면 좋죠. skype는 무료잖아요. 구축을 해놓으면 다중채널로 해서 했던 부분들을 나누고”(온라인을 통한 현장 전문가간의 교류, 현장 전문가 B)

3) 현장요구분석 II :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가) 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상황적 특수성을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반적 문헌 연구를 통해서 아시아계 교포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추출되었지만 재미 한인 교포청소년의 문화/상황적 특수성이 고려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는 민족정체성의 발달이 사회적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직선적이기 보다는 다단계의 모습을 띤 역동적이며 관계적인 과정이라는 이론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제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 자료 수집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Phinney, 1996; Rosenthal & Hrynevich, 1985; Yeh & Hwang, 2000).

둘째, 기존의 문헌연구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지지와 또래 상담자의 자질에 대한 탐색과 보고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재미교포 청소년에게 또래가 갖는 역할과 지지의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구성요소를 추출해 내하고자 했다.

나) 인터뷰 참여자

본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청소년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은 시애틀에서, 다른 한 집단은 샌디에고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나머지 한 집단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방문한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해외교포 청소년은 본 연구진이 섭외한 시애틀, 샌디에고, 아케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이루어졌으며, 시애틀 집단은 10학년의 여자 5명, 남자 5명, 샌디에고 집단은 11학년과 12학년의 남자 2명, 7학년, 9학년과 11학년의 여자 3명 이었다. 또한, 아케디아 집단은 10학년의 남자 1명, 11학년의 여자 1명이었다.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모두 최소 5년 이상이었으며, 세 명을 제외한 참가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중문화 적응의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 및 지지체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추출하기 위해, '①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자, ②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③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주한 이민 1세대의 자녀인 자' 같은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교회 청소년 사역자 및 상담 전문가로부터 추천 및 모집 받았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세한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지역	대상자	성별	연령(학년)	해외 거주기간	자기규정 정체성	소속
시애틀	청소년 A	여	15세(10학년)	15년	매우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B	여	15세(10학년)	15년	약간 더 한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C	여	14세(10학년)	14년	약간 더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D	여	14세(10학년)	14년	매우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E	여	15세(10학년)	15년	약간 더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F	남	17세(12학년)	17년	약간 더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G	남	16세(10학년)	5년	한국적이지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H	남	16세(11학년)	5년	한국적이지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I	남	15세(10학년)	12년	약간 더 미국적	고등학교
샌디 에고	청소년 J	남	16세(12학년)	16년	매우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K	여	13세(7학년)	13년	매우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L	여	17세(11학년)	13년	한국적이지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M	남	14세(11학년)	5년	한국적이지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N	여	15세(9학년)	7년	매우 한국적	고등학교
아케 디아	청소년 O	여	17세(11학년)	17년	약간 더 미국적	고등학교
	청소년 P	남	15세(10학년)	15년	약간 더 미국적	고등학교

다) 면접 질문지의 구성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 박사 2인과 상담학 석사 3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 면접질문지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의 합의를 위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합의된 연구과제의 개념과 일치된 용어를 활용해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 연구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 후, 반구조화된

질문형태를 구성하였으며, 질문목록을 연구개발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질문지는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에 대한 감수는 시애틀 퍼시픽 대학 가족치료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구경험이 있는 미국인 조교에 의해 실시되었다. 포커스 그룹의 질문 내용의 순서는 일반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이고 민감한 질문으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었다.

라) 자료 수집 과정

포커스그룹의 인터뷰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시애틀 청소년 집단은 시애틀에 거주하는 공동 연구진이 진행하였고, 샌디에고 청소년 집단은 샌디에고의 상담전문가가 진행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청소년 집단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방문한 교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집단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인터뷰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비밀 유지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우선 해외교포 청소년 집단은 개인적인 고민 및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에 앞서, 또래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한 지지체계와 또래상담자에게 기대하는 자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프로그램을 위한 구성요소가 논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해외교포 청소년 집단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집단의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시애틀 청소년 집단은 2명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교포 2세들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뷰 진행 전 연구의 목적과 질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발언할 때 이름을 명시할 것 등과 같은 규칙 소개와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인터뷰 진행을 위한 워밍업 질문 시간을 가졌다. 본 인터뷰에 참가한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이민 1세대인 한국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며 경험하게 되는 장·단점과 지지체계의 유무, 또래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나누고, 교포청소년 자신들의 실제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다. 샌디에고 청소년 집단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교포 2세 2명, 유년기나 아동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청소년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진행 방식은 시애틀 청소년 집단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아카데미 청소년 집단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교포 2세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뷰는 본 연구진 중 1명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보조진행자 1명이 추가질문을 함으로써 진술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각 인터뷰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충실히 따르되 질문지 내용 이상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맥락에 따른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등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하였다.

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인터뷰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중심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한 줄 한 줄 검토하여 자료 속의 개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들이 일련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범주들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축코딩이다. 축코딩을 통해 일련의 관계가 확인된 범주들은 대범주와 소범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전사된 축어록 자료를 두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분석한 후 서로가 작성한 의미범주를 상호 검토하여,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각 자료에 대한 1차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각자 축어록에서 초기 범주화를 지지하기 위한 각각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 범주화하였다. 세 차례의 미팅과 지속적으로 문서 자료를 보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 내용을 수정/도출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와 분석 내용을 상담 및 질적분석 전문가 1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바)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핵심이 되는 대범주와 그에 따른 23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내용분석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교포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문제	학업(성적) 관련 영역	A를 받아야하는 스트레스
		숙제가 많은 때나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
	이민 1세대 부모 관련 영역	강요하는 양육방식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또래 관련 영역	또래 관계
		또래 압력
		유행에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
	환경/ 문화적 영역	주변의 기대와 비교 차별
한국문화를 가진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	만점을 원하는 것
		좋은 대학 진학에 대한 압력
		강요하고 잔소리하는 것
	이민 부모의 주류문화에 대한 낮은 동화와 지원 부재	어려운 영어
		낮 설은 미국의 학교 시스템
		학교와 소통이 없는 것
	부모문화와 주류문화의 양육 차이에 따른 갈등	학교 행사에 참석 못/안 하는 것
처벌 위주의 훈육 강요 위주의 훈육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정체성	한국인이자 미국인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과 말을 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하고 미국 친구들과 지내는 것
	생각해 본 적 없다	생각해 본 적 없음
		필요성을 못 느끼지 못함
	한국적 문화의 자긍심	한국 운동선수에 대한 자부심
		두 언어 구사능력에 대한 자부심
		한국 유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램
미디어에 비친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아시아인 코미디언	
내재화된 부정적 이미지		
고민해소 방법	고민해소에 도움을 받을 지지자원의 부재	외부 지지를 받은 경험의 부재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음
	무시하기 (회피하기)	혼자 해소하기
		얘기하지 않기
		그냥 지나가기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순종	
	또래	
또래상담자의 자질로 원하는 점	비슷한 문화적 배경 및 경험	
	상담자의 자질	판단하지 않음
		믿을 만한 신뢰성 소지
		적극적 경청
		리더쉽
	조언	
또래지지 경험	지지 내용	고민 들어주기
		격려/위로하기
		조력하기
	듣는 활동의 이점	행복감
		친밀감
바라는 점	부모/자녀간 상호 존중	제 삼자의 개입
		상호 이해와 존중 함양

(1) 해외교포 청소년이 겪는 문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고민에 대한 전반적 질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분석 결과 교포청소년이 토로하는 고민/ 스트레스는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학업에 따른 영역, 이민 1세대인 부모와 관련된 영역, 또래 관련 영역, 환경적 영역(모델 마이너리티에 대한 기대 혹은 차별)으로 범주화되었다.

①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 및 문제

교포청소년이 경험하는 고민 및 문제로 학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일관된 보고가 있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와 과다한 숙제나 원하는 성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 체험하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성적이 미래의 직업과 더 나아가 인생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보고하고 있었다.

“공부하는 것과 좋은 성적을 얻는거요. 왜냐면 제가 고삼이라 내년에 대학을 가야하는데 성적이랑 좋은 입시점수가 있어야 하거든요.”(대학진학에 대한 고민, 여, 청소년 A)

“너무 숙제가 많을 때가 있고..아니면 이렇게 막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가 가끔씩 있고”(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남, 청소년 J)

“학교나 성적과 관련되서요.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그리고 좋은 인생을 원하잖아요.”(대학진학에 대한 고민, 여, 청소년 C)

② 이민 1세대인 부모와 관련된 영역

이민 1세대인 부모의 자녀로서 경험하는 독특한 상황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교포청소년들은 부모의 한국식 양육 방식이 갖는 갈등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민 1세대로서 고생하시는 부모에 대한 이해와 희생, 그리고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바람을 보고하였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분이셔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저를 정말 많이 강요하세요. 좋은 대학가기를 기대하시고.. 그게 한국 부모님들이 저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 여, 청소년 B)

“그리고 부모님하고는 막 뭘 안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고..아니면 그냥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걸 못하게 하고 다른 걸 강요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냥 부모님들이 잔소리나 그런게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다가 막 짜증나거나 그래서 대꾸를 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강요하는 양육방식, 남, 청소년 P)

“제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저희 아빤 한국의 가난한 지역에서 이민 오셨거든요.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자라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서..좋은 직업을 얻어서 아빠를 편히 살게 해 드리고 싶어요.”(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 여, 청소년 L)

③ 또래 관련영역

교포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친구 관계와 또래 그룹에 들기 위한 고민 또 학교 내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는 것과 이를 부추기는 미디어와 연예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다.

“제가 볼 때 요즘 애들은 친구 문제와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에 대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무리에 속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또래관계, 여, 청소년 E)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또래에게서 받는 압박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마약이나 술 같이 우리 나이의 애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해요.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멋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또래압력, 여, 청소년 D)

“마치 할리우드에 있는 유명인들을 따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연예인들처럼 옷을 입거나 아님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비디오를 만드는 걸 봐요.” (유행에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 여, 청소년 C)

④ 환경적 영역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교포청소년들이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한 고민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모범적인 소수민족(model minority)에 관련된 것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차별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코리안어메리칸이나 막 그런 애들만큼은 막 A를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하고..”(주변의 기대와 비교, 여, 청소년 A)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아이일거라는 기대를 하고 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이나 UC계 대학에 갈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경쟁도 너무 심하고요.” (주변의 기대와 비교, 여, 청소년 B)

(2) 한국 문화를 가진 부모와의 갈등

한국 문화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미국사회에 사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따른 가족 내 갈등 혹은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중 문화의 차이와 그에 따른 관계의 갈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 이중 문화의 양육 차이에 따른 갈등, 이민 부모의 주류문화에 대한 낮은 동화단계 및 지원의 부재,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범주화 되었다.

① 부모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

많은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인부모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와 이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빛어지는 여러 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한국 부모님들은 4.0 완벽한 평점을 원하세요. 점수가 완전히 만점이기를 원하시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자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게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돼’ 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거짓말하게 되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제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니깐요.”(만점을 원하는 것, 여, 청소년 A)

“아빠가 어렵게 자라셔서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빠는 제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한국 부모님들처럼 저희 아빠도 교육이 좋은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강요하고 잔소리 하는 것, 여, 청소년 C)

② 이민부모의 주류문화에 대한 낮은 동화단계 및 지원 부재

인터뷰 참가 청소년들은 한인 부모의 주류문화에 대한 낮은 동화와 영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미국 학교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짐 등을 보고하면서 이로 인한 부모와 학교 사이의 단절, 그리고 부모의 참여나 지지의 부재로 인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여러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던 일들을 보고하였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백인 부모님들은 오셔서 자기 애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때 일하고 계시니깐, 그냥 집에 오셔서 말로만 ‘잘 했어.’라고 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런 자식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들이 보실 수 없으니깐..”(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님, 여, 청소년 K)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시고, 영어를 읽지 못하시니깐 좀 창피해요. 학교에서 농구 행사로 파티에 대한 이메일을 부모님들께 다 보내서 부모님들이 그 준비를 다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늘 그런 것에 참여를 안 하세요.” (학교와 소통이 없는 것, 여, 청소년 O)

③ 부모문화와 주류문화의 양육 차이에 따른 갈등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양육 차이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되었는데, 교포청소년들은 한인 부모의 양육방식을 상대적으로 처벌위주, 그리고 일방적인 강요위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는 사기와 동기를 저하시키는 역기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인 부모님들은 애들이 뭘 하게 하려고 동기 부여를 하실 때, ‘이거를 하면, 보상으로 너한테 이거를 해 줄게.’라고 하시기보다는 ‘이거 안하면, 이거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하세요. 근데 이런 방식은 실은 하고 싶은 동기를 아예 없애버려요.” (처벌 위주의 훈육, 여, 청소년 D)

“미국에서는 뭘 하면 막 왜 해야 되고 그런 이유를 다 알고서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하면 그냥 해야 되고 그런게 많으니깐, 막 부모님이 만약에 뭐 하라고 하면 그 애가 막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근데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 그 애도 막 할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게 많은 것 같아요.” (강요 위주의 훈육, 여, 청소년 L)

④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언어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경험되어지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아빠하고는, 좀 달라요. 아빠는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하세요. 게다가 문화도 달라서, 여러 경우 아빠하고 다들 때가 많아요.” (의사소통 문제, 남, 청소년 J)

(3) 문화적 정체성

교포청소년들이 체험하는 고민과 어려움이 재미한국인으로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및 정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양극화의 답변이 보고되었다. 즉 연구 참가자인 청소년 중에서 일부는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름의 정체성을 구축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 청소년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는 보고(예, 부모님의 한국 문화 유산을 지키고 싶다고 보고하는 청소년)에 반해 대중매체에서 일반적으로 묘사되어지는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이런 인종에 대한 차별이 인터뷰참가자와 또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문화/민족 정체성을 이뤄가는 교포청소년이 갖는 발달학적 그리고 상황적 독특한 혼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나는 100% 한국인이고 100% 미국인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한국인이자 미국인, 여, 청소년 K)

“나는 내가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백인친구들과 말하고, 집에 오면 한국 말을 하고 한국음식을 먹으니까요.”(한국인이자 미국인, 남, 청소년 M)

“뉴스에서 김연아 같은 인물을 보면 내가 한국인이라 자랑스러워요.”(한국 운동선수에 대한 자부심, 여, 청소년 B)

“음, 나는 한국인이예요.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종류의 문화를 갖고 있어서, 때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두 문화를 가짐으로써 오는 장점도 있어요.”(두 문화에 대한 자부심, 여, 청소년 N)

“실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생각 해 본 적이 없음, 남, 청소년 F)

“모든 미디어가 백인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대중매체에서 아시아인은 흔히 볼 수 없고, 아시아인 코미디언은 그들 스스로를 격하시키며 연기해요. ‘난 아시아인이고 눈이 아주 작다’ 등과 같은 농담을 만들어서 말이에요”(미디어에 비쳐지는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여, 청소년 A)

(4) 고민 해소 방법

본 연구를 통해서 교포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상황적 문제와 어려움에 비해 이를 대처해 나가는 해소방법이 많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고민해소법으로 4가지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는데 주로 부재와 소극적인 대처방법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지지자원의 부재, 무시하거나 회피하기, 순종하기, 그리고 또래에게 토로하기 등으로 보고되었다.

“음, 저는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요”(외부지지 경험의 부재, 여, 청소년 L)

“저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편이에요”(무시하기, 남, 청소년 J)

“외부에서 도움 받는 건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냥 도움 받지 않는거에 익숙해요”(생각 해 본적 없음, 여, 청소년 E)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거나 자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화가 났지만, 뭐라 할 수 없거든요. 뭐라 말대꾸하면 전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그냥 지나가기, 여, 청소년 A)

(5) 또래 상담자의 자질로 원하는 점

보다 효과적인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포청소년이 원하는 또래 상담자의 자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강조하는 범주와 적극적 경청과 판단하지 않는 열린 자세 등과 같은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범주,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이나 리더십에 대한 범주로 보고되었다.

특히나 교포청소년들은 자신들이 1.5세 그리고 2세로서 이중문화에서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가며 체험하는 특수한 경험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또래를 선호하며 편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또래상담자면 좋겠어요”(리더십이 있는 사람, 여, 청소년 A)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해결책도 잘 제시해 줄 것 같아요”(비슷한 문화적 경험을 한 사람, 남, 청소년 J)

“한국인 여학생이 또래상담자라면 내 문제에 대해 말하기 더 편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할 테니까요”(비슷한 배경인 사람, 여, 청소년 B)

“아무래도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니까 더 공감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애들한테 얘기하면 별로 이해 못할 거 같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비슷한 배경인 사람, 여, 청소년 L)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신뢰가 가는 사람, 남, 청소년 I)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경청하는 사람, 남, 청소년 M)

(6) 또래지지 경험

교포청소년에게 또래 지지에 대한 경험과 영향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는 인터뷰 참가 청소년들의 또래 지지에 대한 경험과 돕는 활동의 이점으로 분류되었다.

또래지지 경험 내용으로는 고민을 들어주거나, 격려 혹은 위로하기,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뭔가를 찾아보려 노력하는 방식의 보고가 있었으며, 지지경험의 이점으로는 친구가 믿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도움을 통해서 친구를 더 가깝게 알게 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보고되었다.

“친구가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고민 들어주기, 남, 청소년 J)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말하는 사람은 돌봄 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한 감정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해주려 해요.”(들어주는 것, 여, 청소년 O)

“친구가 고민을 나누면, 기뻐요. 친구가 어려움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건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밀을 함께 나누기, 남, 청소년 M)

(7)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안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참가 청소년이 제시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안건이 보고되었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한쪽의 변화보다는 상호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신들의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했다.

“우리에게는 그냥 둘 다, 부모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존중, 서로! 서로 노력하면, 진짜 놓은데.. 부모님은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말이 안통해요. 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군가 step in해줘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고생만 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상호 이해와 존중, 여, 청소년 O)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부모님도 익숙한 부분에서 변화하려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변화하도록 요구할 때, 부모님도 어려울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라온 방식을 알기에, 변화하도록 시도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변화하려 시도해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정상이니까요.”(상호 이해와 존중, 여, 청소년 D)

4)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토투레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및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 문화적응의 어려움, 청소년들의 고민해결 창구, 문화적 정체성 혼란 경험, 토투레상담자의 자질과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등으로 범주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문가와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학업, 문화적응, 부모와의 관계,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인이기 때문

에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 좋은 학교에 가길 원하는 부모님의 압력과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 등의 학업성취 관련 고민이 가장 많았으며, 강요하거나 억압적인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더불어, 이중문화 사회에서 겪는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문제와 함께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움을 말하였다.

이렇게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여러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청소년 인터뷰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심리적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참거나 또래 혹은 가족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추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래상담을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상담자의 자질로서 현장전문가와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배려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경청과 공감기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어기역차’, ‘원무지계’ 기법 등을 이용하여 또래상담자의 경청, 배려, 공감 등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의 자질로 언급된 것은 교포 청소년들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유사한 고민을 했고,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다문화 집단에 소속되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 해 나갈 수 있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있어 현장전문가들은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멘토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교포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 집단에서 소수민족이라는 고민을 갖고 있으며, 정체성 혼란, 가족 갈등 등의 문제가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겪는 고민인 경우가 많다. 이에 이민 또는 유학 등으로 문화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멘토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소년에게 들려줌으로써 다문화 유능성과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멘토를 활용한 활동을 본 프로그램에 포

함시킴으로써 해외교포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인터뷰 결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 오프라인 형식의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과는 달리 온라인형식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교통문제, 학업문제 등으로 한국에서처럼 청소년들이 쉽게 모일 수 없는 교육 접근성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효율적 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해외교포 청소년 또래상담자, 해외교포 사회 내 청소년 대상 현장 전문가,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멘토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견고한 지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구성 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및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추출하였다.

1) 프로그램 구성원리

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또래상담프로그램에서 강조한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금명자 등(2003)은 또래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및 역할을 Friendship(좋은 친구 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 되기), Leadership(도움 주는 친구 되기)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Friendship(좋은 친구 되기)' 역할은 또래상담자가 다른 또래들과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또래상담자들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길러야 하고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되기)'는 또래상담자들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며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Leadership(도움 주는 친구 되기)'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조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조력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 방법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같이 솔리언 또래상담 기초훈련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과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또한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을 규정하고 그 훈련단계를 구성하였다. 먼저, 'Friendship(좋은 친구 되기)'은 다른 교포 청소년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포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다른 교포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함양하는 훈련 내용이 필요하다. 둘째,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되기)'는 교포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여 친구의 고민해결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포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부모와의 갈등, 학업문제로 인한 부담감 등)을 이해하고,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기법을 배우는 훈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셋째, 'Leadership(도움 주는 친구되기)'는 교포 또래친구의 어려움을 알아내고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다문화적 유능감이 강조된다.

나) 또래상담자의 다문화 유능감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한다.

기초 요구 조사 결과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고민의 상당부분이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한국문화를 가진 부모와의 갈등 등 두 가지 이상의 문화 간 적응에서 오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포 청소년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돕는데 있어, 또래상담자들이 다문화적 유능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교포 또래 친구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상담기법 및 조력방법을 습득하고, 다문화적 유능감을 함양하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 또래상담자 역할 세 단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해외 교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선행연구와 해외교포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를 통해 해외 교포 청소년들이 국내 청소년들과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학업문제, 부모와의 갈등 문제 외에도 해외교포이기 때문에 갖는 문화적 정체성

혼란, 소외(따돌림) 문제를 또래상담자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본 교육 프로그램 특히, Counselorship 단계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또래상담자의 다문화 정체성 이해 및 자기이해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어 Friendship과 Leadership 단계에서의 교육을 통해 정체성 이해 및 다문화적 유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라)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진행 방식에 있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현장전문가들은 해외교포의 경우 교육을 위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접근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웹교재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전문가의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Counselorship 단계에서 오프라인에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접하며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을 배운 후,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 실제 친구들을 돕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는, Friendship 단계에서 친구관계 이해와 관련된 강의부분을 웹교재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된 토론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도록하여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마) 본 프로그램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을 위한 멘토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멘토의 도움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해외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만이 갖는 고유의 어려움을 공감 해 줄 수 있고, 고민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선례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또래상담자 역할 세 단계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용되고 있는 훈련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한다.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경청 기법, 상담 기법, 어기역차(공감기법) 및 원무지계(문제해결전략), 공동체 조성활동, 멘토링 등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

과에서도 대화기술, 의사소통, 또래지지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대화를 통한 감정 및 생각 나눔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타난 바,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기술 능력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프로그램 활동 구성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 각각의 단계에 따라 또래상담자들의 역할을 교육하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한다.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역할인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을 각기 교육 영역과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교육 영역은 또래상담자의 역할수행을 위한 역량 및 자질 함양을 돕는 훈련 내용으로 구성되며, 활동 영역은 역할 수행을 하는 실제 활동을 돕는 훈련 내용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들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내용과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양미진, 서미, 주지선, 김혜영, 전환희, 성벼리, 2013)에 근거한다.

2) 내용 구성

가) 프로그램 목표 설정

문헌연구 고찰과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앞의 구성 원리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또래상담자는 어려움을 가진 친구에게 경청,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둘째, 또래상담자는 자신 및 타인이 가진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또래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문화적인 유능감을 가진 청소년 지도자로서 성장한다.

넷째, 또래상담자는 경청 및 공감의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위의 목표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의 구성모형 및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모형

단계	하위목표	구성요소	세부내용
Friendship (다가가는 친구되기)	-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정체성 이해 - 친구관계 탐색	- 친구로서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기 - 나의 친구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인식하기 - 친구와 가까워지는 방법 배우기
Counselor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 다양한 심리적 문제 이해 - 대화기술 습득	- 친구의 고민 이해하기 - 경청기술 습득	- 해외교포 청소년으로서 겪을 수 있는 5가지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 - 스트레스 관리법 배우기 - 적극적 경청, 공감기술 습득하기(어기역차)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 다문화적 유능감 함양 - 상담기법 습득	- 다문화 사회에서의 자신 이해 - 유능감 획득	- 다문화 사회에서 성공한 멘토의 사례 보기 - 상담기법 습득(원무지계 기법) - 지역 공동체 문화의 이점 이해하기

나) 프로그램 운영원리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국외 거주하는 지도자 및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급이 운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먼저 또래상담을 교회, 한글학교, 한국학원, 교육지역구 단위,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보급한다. 이때 보급 시 각 단체에서 슈퍼바이저를 임명하여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교육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한다. 슈퍼바이저의 교육 및 관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지도자는, 슈퍼바이저가 선발하고 교육시키되 그 대상은 목회자, 대학생 및 멘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슈퍼바이저나 지도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지도자 양성교육에 한계가 있는바, 지도자 양성교육은 지양하는 대신 지도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즉, 자격이 되는 지도자에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주고, 이후 프로그램 사용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Friendship의 교육 및 활동, Counselorship의 교육 및 활동, Leadership의 교육 및 활동 총 6회기로 구성된다. 각 회기는 2시간으로 구성되며, 각 회기는 온라인교육(1시간)과 오프라인 교육(1시간)으로 구성된다.

넷째, 프로그램의 진행은 Friendship의 교육회기, 활동회기, Counselorship의 교육회기, 활동회기, Leadership의 교육회기, 활동회기 순으로 진행된다. Counselorship의 교육회기에서 심리적 문제이해하기 파트는 총 5개의 문제영역으로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도자는

지역 청소년에게 맞는 문제영역을 선택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다) 프로그램 초안의 세부 내용

문헌연구, 질적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프로그램의 목표, 구성요인 및 운영원리에 따라 지도자용 프로그램 지침서와 그에 따른 청소년용 웹교재를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해외교포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친구관계에 대해 탐색하며, 또래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배우는 'Friendship(다가가는 친구 되기)' 단계, 해외교포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이해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배우는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 되기)' 단계, 다문화 배경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유능감을 획득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상담기법 및 공동체 문화에 대해 습득하는 'Leadership(도움주는 친구 되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별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training)회기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습을 하는 활동(activity)회기를 만들었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 시간과 세부 내용은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슬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내용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Friendship (다가가는 친구되기)	교육	120	- 자기 이해 - 친구 사귀는 방법 습득	- 도입활동 •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내용 소개 • 나와 닮은 사진을 찾고, 나의 어떤 점과 닮았는지 생각을 적어보게 함 - 주요내용 • 나는 누구일까?(Who am I?) : 내가 생각하는 나와 외면의 나를 구분하여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함 • 나의 친구관계는?(My friendship) : 친구관계 지도를 그림으로써 어떤 집단(예: 교포, 미국인)의 친구들과 더 가까운지, 친구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 봄 - 정리 활동 •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비밀 유지 등의 윤리의식에 대해 설명함
	활동	60		- 도입활동 • 실타래 풀기(Unravel a tangle) : 실타래 풀기 게임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함 - 주요활동 • 친구란?(Definition of friend) :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게 함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정곡선 만들기(My friendship curve) :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려보게 하여 사이가 좋았을 때, 좋지 않았을 때에 따라 곡선을 그리게 함.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에 대해 나누게 함 장애물 극복하기(Resolving obstacles with friends) :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 더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 등을 생각하여 언제, 누구와, 어떤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보게 함 <p>- 과제 :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선정하여 인터뷰 시도하기</p>
Counselor 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교육	120		<p>- 도입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회기 과제 점검 생각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를 만듭니다. : 착시효과 사진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 생각과 감정 구분하기 : 어떤 생각으로 인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구분하고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게 함 <p>- 주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s) : 학업스트레스, 문화적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및 소외 4가지 스트레스에 대하여 모듈식으로 토론하고 이와 관련된 역할극을 실시 해 봄.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됨 스트레스 관리 : 나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이 방법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게 함
	활동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이해 - 대인관계 기술 향상 -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이해 - 경청 및 공감기법 습득 	<p>- 도입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주기(Listening to friends in various ways) : 무조건 안들어주는 경험과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함 <p>- 주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팽이 게임(snail game) : 2명씩 짝을 이루어, 한 명은 눈을 감고 한 명은 설명을 하며 달팽이 모양의 미로를 빠져나오게 함. 이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습득함 어기역차 전략 배우기 :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하여 공감해주며, 차이를 인정하는 전략 습득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친구, 가족 중 고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기역차기법을 실습하고 기록하여 다음 시간에 가져 오도록 함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교육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유능감 향상 - 조력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대통령(kid president)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리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영상을 통해 리더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킴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로서의 자질(My qualities as a lea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리더의 자질 중 자신이 갖고 있는, 갖고 싶은 자질을 생각해 보도록 함 • 내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Thinking about a leader from my 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포 청소년으로서 다문화 경험을 통해 습득된 강점과 역량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게 함 • 멘토 인터뷰(Mentor's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의 멘토 인터뷰를 시청하고, 멘토들이 갈등이 생긴 과정에서 어떤 강점을 개발시켰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함 - 정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인터뷰를 해 오도록 함
	활동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주는 대화의 기본 전제에 대해 환기시킨 후, 원무지계 전략을 가르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습함 • 공동체문화 조성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로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미래의 자신이 되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역할극을 해 봄 - 정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 동안의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감을 나누는 후 마무리 함

다.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단계

1) 프로그램 실행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위해 미국지역 상담소, 한인대상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범운영 지도자와 참가자 모집 홍보를 하였다, 모집 대상에 있어 지도자의 경우 미국에서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은 9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또한, 시범운영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됨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더불어, 시범운영 실시 전 본 연구에 대한 샌디에이고 대학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시범운영 참가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시범운영 지도자 및 참가자 모집결과, 최종적으로 미국 서부 시애틀 소재 한인 상담소 1곳과 샌디에고 소재 상담센터 1곳에서 시범운영이 이루어졌다. 시범운영 지도자 대상 본 프로그램 교육은 화상회의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의 개발원리, 취지,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10월~11월초에 거쳐 공동연구진 1명의 협조 아래 시애틀 상담소에서 시범운영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가 직접 샌디에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시범운영 과정을 지켜보았다.

각 지역별로 청소년 10명씩 시범운영에 참가하였으며 샌디에고 지역 16명의 청소년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참가 청소년 및 통제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범운영 실시 후 검사 및 평가지 결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

2) 프로그램 평가 및 수정보완

프로그램 시범운영 지도자의 회기 및 종합평가, 시범운영 참여 학생들의 회기별 평가와 의견, 사전-사후 검사결과의 내용을 분석한 후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향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방향을 결정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외국의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감수 받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트래상담 프로그램의 매뉴얼과 웹교재 등은 추후 해외교포 청소년 지도자들을 통해 일선 현장으로 보급 할 계획이며,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름으로 솔리언트래상담자 수료증을 발급하였다.

2. 프로그램 평가

가. 연구 설계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간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비교를 통해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참여 청소년의 참여자 관점 프로그램 평가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 관점 프로그램 평가지의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자원, 교육훈련 환경, 훈련 담당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Sanderson, 1995, 이호준, 2006에서 재인용) 주로 교육 참가 당사자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이호준, 2006). 사전검사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1회기(1단계) 시작 전,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 평가는 6회기(3단계)를 마친 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내용은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 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₁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O₁, O₃ : 사전검사(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

O₂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프로그램 평가지

O₄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X₁ :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나. 연구 대상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미국 상담소 및 언론을 통해 본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한 공고를 낸 후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36명으로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집단은 샌디에이고 지역 16명, 실험집단은 샌디에이고 및 시애틀 지역 각각 1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10학년(한국 학제로 고1)이 각각 40%(8명), 43.8%(7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14.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성별은 실험집단의 경우 남자 70%(14명), 여자 30%(6명)이었으며, 통제집단은 남녀 각각 8명(50%)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참여 청소년의 50%(18명)은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나머지 50%(16명)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보다 자세한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6)

구분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16)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역	샌디에고	10	50.0	16	100
	시애틀	10	50.0	0	0.0
성별	남	14	70.0	8	50.0
	여	6	30.0	8	50.0
학년	7학년	3	15.0	0	0.0
	8학년	2	10.0	0	0.0
	9학년	5	25.0	3	18.8
	10학년	8	40.0	7	43.8
	11학년	1	5.0	6	37.5
	12학년	1	5.0	0	0.0
나이	12	2	10.0	0	0.0
	13	4	20.0	0	0.0
	14	5	25.0	2	12.5
	15	5	25.0	8	50.0
	16	3	15.0	5	31.3
	17	1	5.0	1	6.3
출생지	미국	10	50.0	8	50.0
	그 외 지역	10	50.0	8	50.0

2) 다문화 관련 특성

한편,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소속 인종과 한국어 및 영어 유창성, 가정 내 사용 언어를 분석하여 연구에 참여한 해외 교포 청소년의 다문화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9.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속인종 (N=36)

구분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
빈도 (백분율)	11 (30.6)	21 (58.3)	4 (11.1)

먼저,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58.3%, 21명)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30.6%(11명), 미국인 4명(11.1%)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언어 유창성 정도 (N=36)

언어	전혀 유창하지 않다	조금 유창하다	유창한 편이다	유창하다	평균
한국어	1 (2.8)	7 (19.4)	13 (36.1)	15 (41.7)	3.17
영어	0 (0.0)	1 (2.8)	5 (16.7)	29 (80.6)	3.78

다음으로, 언어 유창성에 대한 응답 결과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어와 영어 각각 평균 3.17, 3.78로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22.2%(8명)의 청소년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1.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가정 내 사용 언어 (N=36)

구분	한국어	한국어 영어 모두 (주로 한국어)	한국어 영어 모두	한국어 영어 모두 (주로 영어)	영어
빈도 (백분율)	5 (13.9)	18 (50.0)	8 (22.2)	3 (8.3)	2 (5.6)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표 11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의 50%(18명)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를 절반씩 사용하는 경우가 22.2%(8명),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13.9%(5명),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8.3%(3명),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5.6%(2명)순으로 나타났다.

다. 측정 도구

시범운영 결과 프로그램 참여가 본 프로그램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전사후 검사 도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또래상담자의 자질인 공감 및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Mamarchev, 1981)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선정되었다. 즉, 공감 및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반응성척도(Davis, 1983), 다문화사회 리더로서 교포 청소년 능력을 측정하는 다문화적 유능감 및 다문화 정체성을 선정하였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측정도구

번호	측정 변인	측정 도구	문항수	하위영역
1	대인관계	Davis(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28	- 조망수용능력 - 공감적 관심 -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 - 자기중심적 공감
2	다문화 유능감	David, Okazaki, & Saw(2009)가 개발한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26	- 사회적 기반 - 의사소통능력 - 긍정적 태도 - 행동 레퍼토리 - 이중문화적 신념
3	다문화 정체성	Phinney(1992)가 개발한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15	- 인지적 관여(탐색) - 정서적 관여(확신, 소속감, 헌신)

1)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Fantasy), 자기중심적 공감(Personal Distress)의 4가지 하위요인이 7문항씩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조망수용능력과 공감적 관심 변인 질문만을 사용하였는데,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의도, 태도, 감정, 욕구를 추론하는 능력을 뜻하며, 공감적 관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

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표 13.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하위 영역	측정 변인	신뢰도 계수
조망수용능력	2*, 4, 6, 8*, 11, 13, 14	.94
공감적 관심	1, 3, 5, 7*, 9*, 10, 12	

* 역채점 문항

2)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갖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d, Okazaki와 Saw(2009)가 개발한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기반(Social Groundedness) 6문항,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Ability) 4문항,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s) 4문항, 지식(Knowledge) 5문항, 행동 레퍼토리(Role Repertoire) 3문항, 이중문화적 신념(Bicultural Beliefs) 4문항으로 총 7개의 하위요인과 전체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표 14.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하위 영역	측정 변인	신뢰도 계수
사회적 기반	1, 2, 3, 4, 5, 6	.86
의사소통능력	7, 8, 9, 10,	
긍정적 태도	11, 12, 13, 14	
행동 레퍼토리	16, 17, 18	
이중문화적 신념	18, 19, 20, 21	

3)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집단 내에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Phinney와 Charvira(1992)가 개발한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를(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인지적으로 관여하는 것(ethnic identity search) 4문항과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affirmation, belonging, commitment) 8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표 15.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하위 영역	측정 변인	신뢰도 계수
인지적 관여	1, 2, 4, 8	.89
정서적 관여	3, 5, 6, 7, 9, 11, 12	

라.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및 사후 검사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증(paired-difference test)을 통한 효과성 검증과 효과크기 측정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대응표본 t-검증분석에는 SPSS 20.0을 사용하였고, 효과크기는 측정 공식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식은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d = \frac{\overline{X_E} + \overline{X_C}}{S_c}$$

그림 2. 효과크기 측정 공식

$\overline{X_E} - \overline{X_C}$: 사전-사후 평균값의 차이크기
 S_c : 표준편차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먼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사전 및 사후 검사 실시를 통해 본 프로그램 참여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범운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반응성’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점수는 사전검사의 평균점수($M = 49.60, SD = 5.55$)와 비교해 사후검사의 평균점수($M = 52.00, SD = 5.54$)가 약 3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74, p < .01, d = -.43$). 한편, 하위요인인 ‘공감적 관심($t = -3.24, p < .05, d = -.41$)’과 ‘조망수용능력($t = -2.49, p < .01, d = -.29$)’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6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16. 집단별 대인관계 반응성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i>M(SD)</i>	사후 <i>M(SD)</i>	<i>t</i>	유의 수준	사전 <i>M(SD)</i>	사후 <i>M(SD)</i>	<i>t</i>	유의 수준	
대인관계 반응성	49.60 (5.55)	52.00 (5.54)	-3.74**	.001	47.75 (4.61)	48.75 (3.22)	.75	.674	
하위 요인	공감적 관심	24.80 (3.78)	26.40 (4.11)	-3.24*	.004	24.75 (4.61)	23.75 (3.22)	-1.28	.463
	조망수용 능력	24.80 (2.97)	25.60 (2.60)	-2.49*	.022	23.00 (3.80)	25.00 (3.62)	-.3	.219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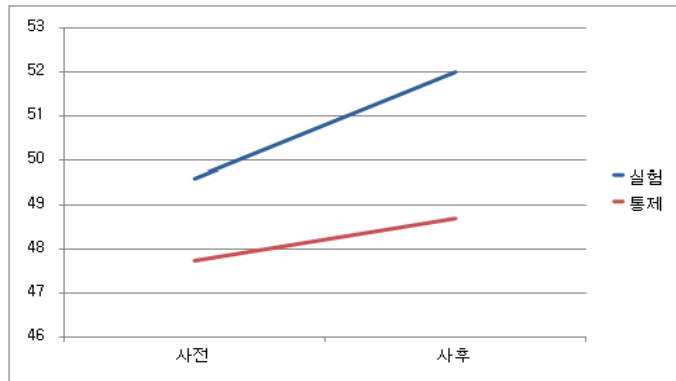


그림 3.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반응성 점수 사전 사후 평균변화

다음으로, 참여 청소년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검사 평균($M = 85.80, SD = 12.45$)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 = 91.80, SD = 14.39$)이 약 6점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3.34, p < .001, d = -.43$). 한편, 하위요인인 ‘사회적 기반($t = -3.34, p < 0.1, d = -.39$)’, ‘의사소통 능력($t = -2.85, p < .05, d = -.29$)’, ‘이중문화적 신념($t = -3.90, p < .05, d = -.83$)’의 경우 사전검사 점수 평균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 평균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태도’, ‘행동 레퍼토리’ 하위요인은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점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7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17. 집단별 다문화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i>M(SD)</i>	사후 <i>M(SD)</i>	<i>t</i>	유의 수준	사전 <i>M(SD)</i>	사후 <i>M(SD)</i>	<i>t</i>	유의 수준	
다문화 자기효능감	85.80 (12.45)	91.80 (14.39)	-4.58***	.000	78.50 (9.59)	75.38 (9.12)	.87	.397	
하위 요인	사회적 기반	27.60 (4.86)	29.60 (5.30)	-3.34**	.003	23.50 (5.49)	20.63 (4.87)	1.99	.065
	의사소통능력	14.70 (3.37)	15.60 (2.68)	-2.85*	.010	13.88 (2.39)	12.75 (3.61)	1.14	.272
	긍정적 태도	16.90 (2.77)	17.30 (3.05)	-1.17	.258	15.50 (1.55)	14.75 (2.18)	1.05	.311
	행동 레퍼토리	11.70 (1.46)	12.40 (2.06)	-2.05	.054	10.50 (1.37)	11.25 (1.00)	-1.86	.083
	이중문화적 신념	14.90 (2.17)	16.90 (2.61)	-3.90**	.001	15.13 (2.75)	16.00 (2.19)	-.97	.34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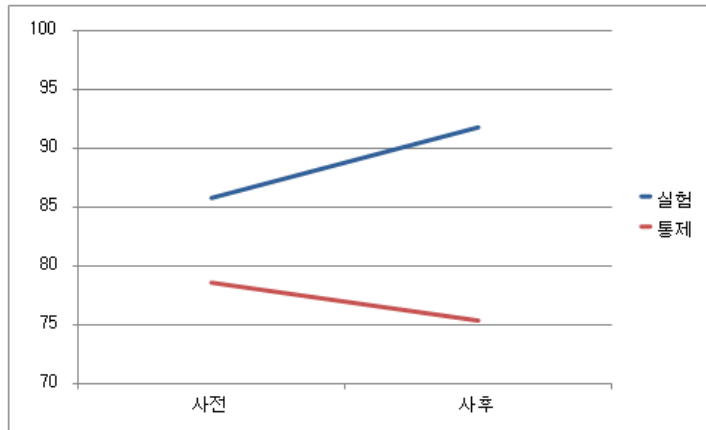


그림 4. 집단에 따른 다문화 자기효능감 점수 사전 사후 평균변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사전검사 점수($M = 37.10, SD = 3.93$)에 비해 사후검사점수($M = 39.90, SD = 4.69$)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 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t = -4.92, p < .001, d = -.65$). 또한, 하위요인인 ‘인지적 관여’($t = -8.85, p < .001, d = -.54$)와 ‘정서적 관여’($t = -2.80, p < .05, d = -.59$) 모두 사전-사후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8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18. 집단별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i>M(SD)</i>	사후 <i>M(SD)</i>	<i>t</i>	유의 수준	사전 <i>M(SD)</i>	사후 <i>M(SD)</i>	<i>t</i>	유의 수준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37,10 (3,93)	39,90 (4,69)	-4,92***	.000	38,13 (4,27)	36,38 (4,56)	.88	.391
하위 요인	인지적 관여	14,60 (2,06)	15,90 (2,69)	-8,85***	.000	14,63 (2,36)	14,50 (2,25)	.12	.903
	정서적 관여	22,50 (2,12)	24,00 (2,87)	-2,80*	.011	23,50 (3,35)	21,88 (3,24)	1,17	.259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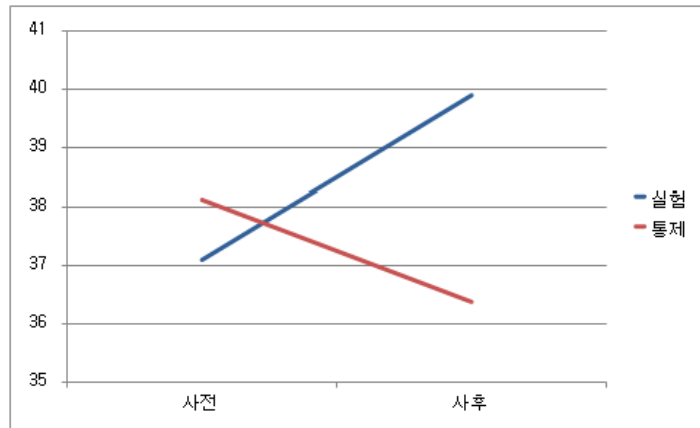


그림 5. 집단에 따른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점수 사전 사후 평균변화

2.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평가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배포하고, 도움이 된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만족도 평가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중 45%(9명)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으며, 30%(6명)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25%(5명)가 '보통이었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가자들의 50%(10명)가 '만족스러웠다', 30%(명)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의 90%(18명)가 다른 친구들에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쉬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 청소년의 45%(9명)가 '쉬웠다'고 하였으며, 30%(6명)가 '매우 쉬웠다'고 응답하여 본 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각각 40%(8명)의 참여자가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65%(13명)의 청소년이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청소년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9과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19. 시범운영 참여청소년의 종합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4 (20.0)	10 (50.0)	6 (30.0)	4.1	20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1 (5.0)	0 (0.0)	3 (15.0)	13 (65.0)	3 (15.0)	4.1	20
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0 (0.0)	0 (0.0)	8 (40.0)	8 (40.0)	4 (20.0)	3.8	20
6. 프로그램이 해외에 있는 다른 교포청소년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0 (0.0)	0 (0.0)	3 (15.0)	10 (50.0)	7 (35.0)	4.2	20

표 20. 프로그램 추천의향 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2 (10.0)	18 (90.0)	1.1	20

한편, 솔리언포래상담 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Friendship 단계에 대해서는 80%(17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본 회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단계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 주관식 문항에서도 ‘포래간의 활동, 역할놀이 등이 유용했으며, 내가 누구인지,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Counselorship 단계에 대해서는 75%(15명) 이상의 참여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법에 대해 배웠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Leadership 단계에 대해 80%(17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매우 즐거웠고, 나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 프로그램에 대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종합평가, 단계별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1과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1.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객관식)

(단위 : 명)

단계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응답수
Friendship	교육	0 (0.0)	0 (0.0)	4 (20.0)	12 (60.0)	4 (20.0)	4.0	20
	활동	0 (0.0)	0 (0.0)	3 (15.0)	13 (65.0)	4 (20.0)	4.1	20
Counselorship	교육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활동	0 (0.0)	0 (0.0)	4 (20.0)	12 (60.0)	4 (20.0)	4.0	20
Leadership	교육	0 (0.0)	0 (0.0)	4 (20.0)	10 (50.0)	6 (30.0)	4.1	20
	활동	0 (0.0)	0 (0.0)	6 (30.0)	9 (45.0)	5 (25.0)	4.0	20

표 22.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주관식)

(단위 : 명)

단계별 구분		응답 내용(예문)
Friendshi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다. ·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유용했다. · 이해하는데 체계적이고 쉬웠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많아서 좋았고, 역할놀이, 게임 등이 좋았다. · 즐거운 경험이었다. ·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친구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Counselorshi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상담기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도 꽤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다. · 사례연구가 좋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 좋았다.
Leadershi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 이해하기가 매우 쉬웠고, 도움이 되었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 내가 교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또래상담 관련 전문가 2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전문가 1인은 샌디에이고 대학의 가족과 정신건강학과 교수로서 소수민족 대상의 임상평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다른 전문가 1인은 시애틀 퍼시픽 대학 상담교육학과 교수로 학교상담 관련 연구자이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감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Peer Helpers Program’ 이름으로 번역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Helpers’라는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도우미’와 같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비롯하여 한인 학부모들은 ‘상담’과 ‘도움’에 대한 단어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용이하고 보다 친숙한 ‘멘토’ 등과 같은 단어로 교체하여 ‘Peer Mentor Program’과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의 범위, 나이 및 모국어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명료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대상이 한국에서 온 이민자인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나이, 학년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이 알맞게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전문가들은 또래상담자의 활동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먼저,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상담의 경우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에 또래상담자의 활동범위를 규명하여 또래상담자의 개입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또래상담 운영 방식에 있어 선배가 후배를 상담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에 거부감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넷째, 감수자들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윤리와 관련하여 또래상담자와 상담을 받게 되는 학생과 부모에게 또래상담 훈련, 시간, 수퍼비전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상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시 또래상담자가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나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과

함께 토래상담자가 말한 내용과 대처한 내용에 대해 기록하는 것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슈퍼바이저의 적극적 개입과 이를 위해 훈련된 상담사 및 슈퍼바이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섯째,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토래상담 프로그램의 보급과 관련하여 학교를 통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에서 소수민족 청소년이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상을 목격하거나 만나기가 용이하며,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보급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지침서에 토래상담의 특성, 효과성, 운영사례 등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을 함께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간호사, 상담사, 행정가 등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학교상담학회(American School Counseling Association)에 토래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 각 회기 별 감수로는 본 프로그램 1단계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보다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질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단계의 파트 제목인 'Counselorship'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기에 파트 제목을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단어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프로그램 지침서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써 매뉴얼에 기술된 글의 형식이 2인칭이 아닌 3인칭의 관점(예 :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대신, '참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으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회기 및 종합평가, 전문가 감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정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및 참여자 관점의 회기별 평가를 통하여 시범운영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하며, 참여한 청소년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진은 프로그램이 갖는 기본 구성요소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초안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전문가 감수를 통해 해외 교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명칭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 또는 도움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한인 사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많은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Peer Helper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 명 대신 Peer Mentor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2단계의 Counselorship이라는 단어 대신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수정하였다.

둘째, 전문가 감수 결과, 또래상담자들이 다룰 수 있는 사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비밀보장 등 윤리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또래상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회기 Friendship의 교육 파트에서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 파트를 보완하였다. 먼저,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영역 및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추가하다. 또한 전미또래상담전문가협회(NAPPP)의 윤리강령, 비밀유지 서약서, 또래상담시 멘티 혹은 또래내담자의 동의서를 받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시 전문상담기관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자의 상담 및 활동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지침서에 또래상담 사례 지도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다. 또한 3회기 Leadership 부분에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지도자와 점검해봄으로써 또래상담 활동이 안전한 범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격려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수혜자의 나이 및 모국어 등 대상 정보가 명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연구 주 대상이었던 영어가 편한 초등학교 때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1.5세 및 2세 재미교포 중 8학년(중 2)에서 11학년(고 2)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영어가 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 청소년 웹교재나 워크북은 영어로 구성하고, 지도자 지침서는 영어 및 한국어 두 종류로 구성하였다.

넷째, 교포사회 내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의 지도자들이 직접 학교를 통해 보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국학교상담학회를 포함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한인사회 내 보다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재외 한인동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글의 형식이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지도자 지침서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첫 문장은 2인칭을 고수하였고, 그 외의 구체적인 지침은 3인칭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사항에 따라 최종 정리된 프로그램 내용은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수정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단계	구분	시간 (분)	목표	세부 내용
Friendship (다가가는 친구되기)	교육	120	- 자기 이해 - 친구사귀는 방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내용 소개 • 나와 닮은 사진을 찾고, 나의 어떤 점과 닮았는지 생각을 적어보게 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일까?(Who am I?) : 내가 생각하는 나와 외면의 나를 구분하여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함 • 나의 친구관계는?(My friendship) : 친구관계 지도를 그림으로써 어떤 집단(예: 교포, 미국인)의 친구들과 더 가까운지, 친구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 봄 - 정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 : NAPPP(National Association Peer Program Professionals) 윤리강령을 설명하면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심각한 사례의 경우 또래상담 지도자와 반드시 의논할 것을 설명하고, 전문상담기관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 또래상담 사례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기 • 또래상담자로서 동의서(및 부모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사인하도록 하기 : 또래상담 활동 시 상대방(및 부모동의서)에게 동의서를 받기 설명하기
	활동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타래 풀기(Unravel a tangle) : 실타래 풀기 게임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함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란?(Definition of friend) :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게 함 • 우정곡선 만들기(My friendship curve) :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려보게 하여 사이가 좋았을 때, 좋지 않았을 때에 따라 곡선을 그리게 함.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에 대해 나누게 함 • 장애물 극복하기(Resolving obstacles with friends)

단계	구분	시간 (분)	목표	세부 내용
				<p>: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 더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 등을 생각하여 언제, 누구와, 어떤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보게 함</p> <p>- 과제 :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선정하여 인터뷰 시도하기</p>
Fellow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교육	120		<p>- 도입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회기 과제 점검 • 생각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를 만듭니다. : 착시효과 사진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 • 생각과 감정 구분하기 : 어떤 생각으로 인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구분하고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게 함 <p>- 주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s) : 학업스트레스, 문화적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및 소외 4가지 스트레스에 대하여 모듈식으로 토론하고 이와 관련된 역할극을 실시 해 봄.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됨 • 스트레스 관리 : 나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이 방법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게 함
	활동	60	<p>-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이해</p> <p>- 대인관계 기술 향상</p> <p>-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이해</p> <p>- 경청 및 공감 기법 습득</p>	<p>- 도입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주기(Listening to friends in various ways) : 무조건 안 들어주는 경험과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함 <p>- 주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팽이 게임(snail game) : 2명씩 짝을 이루어, 한 명은 눈을 감고 한 명은 설명을 하며 달팽이 모양의 미로를 빠져나오게 함. 이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습득함 • 어기역차 전략 배우기 :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하여 공감 해주며, 차이를 인정하는 전략 습득 <p>-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친구, 가족 중 고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기역차기법을 실습하고 기록하여 다음 시간에 가져 오도록 함

단계	구분	시간 (분)	목표	세부 내용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교육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유능감 향상 - 조력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대통령(kid president) 영상 시청 : 어리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영상을 통해 리더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킴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로서의 자질(My qualities as a leader) : 다양한 리더의 자질 중 자신이 갖고 있는, 갖고 싶은 자질을 생각해 보도록 함 • 내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Thinking about a leader from my place) : 교포 청소년으로서 다문화 경험을 통해 습득된 강점과 역량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게 함 • 멘토 인터뷰(Mentor's Interview) : 4명의 멘토 인터뷰를 시청하고, 멘토들이 갈등이 생긴 과정에서 어떤 강점을 개발시켰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함 - 정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주위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인터뷰를 해 오도록 함
	활동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무지게 전략 이해하기 : 도움주는 대화의 기본 전제에 대해 환기시킨 후, 원무지게 전략을 가르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습함 • 공동체문화 조성 활동 : 또래상담자로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미래의 자신이 되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역할극을 해 봄 • 또래상담 활동 계획 : 또래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계획해봄. 한국에서 진행되는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지금 현재 자신은 어떻게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 계획을 세워봄. - 정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 동안의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감을 나누는 후 마무리 함

V. 요약 및 논의

1. 연구 요약

세계화 흐름에 따른 국외 이민 수의 증가로 해외 거주 교포 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민, 유학 등으로 외국 문화권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언어와 생활방식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재외 교포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 적응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박소라, 2008), 이 때 자신이 어떤 문화 집단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소수 민족계 청소년으로써 주류 문화 집단과 비교하여 갖게 되는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뿐 아니라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함께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 교포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다문화 상담가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재외 교포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해결 모델(Natural Helpers Model, NHM)과 국내외 토래상담 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솔리언토래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성, 자기효능감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인 토래간 상담모형이라는 점에서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다문화 유능감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솔리언토래상담 프로그램 모형을 바탕으로 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토래상담 프로그램 및 지도자용 지침서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이 다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

는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여기서 발생하는 알콜, 약물, 게임 중독, 폭력 등의 외현화문제와 낮은 자존감, 불안 장애, 우울증과 같은 내현화문제를 겪으며, 부모세대와 다른 문화로 인해 문화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해외의 청소년 조력 프로그램으로는 Natural Helper 프로그램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팀링(teaming), 미국 내 소수인종 청소년과 난민 청소년을 돕기 위해 개발된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로 언어와 학습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내적인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으로 국외에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 청소년과 같은 동양계 소수민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요구 분석을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접과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 및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인터뷰 결과, 실제 교포 청소년들이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집단 내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여 이를 적절히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또래상담자를 원하였고,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수집단으로서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Friendship(다가가는 친구 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되기)’, ‘Leadership(도움주는 친구되기)’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세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둘째, 각각의 단계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실제 실습을 하는 교육 및 활동회기로 구성한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주로 고민하는 심리적 문제(예 : 학업, 부모와의 갈등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한다. 넷째,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기법(예 : 어기역차, 원무지계 등)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섯째, 운영방식에 있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며, 웹교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해외교포 청소년들과 유사한 고민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멘토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위와 같이 도출된 구성원리를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심리적 문제 이해 및 대화기술 습득’, ‘다문화적 유능감 및 상담기법 습득’이라는 하위목표를 수립하고 총 3단계, 6

회기(교육 120분, 활동 60활동)의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의 내용은 또래상담자로서 역할 이해하기, 자신과 친구관계 돌아보기, 여러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 경청 및 상담기법 습득하기, 다문화집단 내 지도자로서의 자질 습득하기, 공동체문화 조성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을 토대로 시범운영을 위한 영어 및 한국어 지도자용 지침서와 영어 웹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미국소재 대학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지역 상담소와 언론매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10월~11초 중 본 연구의 연구진의 협조 아래 샌디에고와 시애틀에서 2명의 지도자들이 7~12학년 청소년 3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상담관련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포 청소년을 지도 해 온 현장전문가이며, 온라인 화상회의와 서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20명의 실험집단과 16명의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와 참여자 관점 평가(종합평가, 회기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과 지도자용 지침서가 미국 내 문화에서 사용되는 것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반응성의 경우, 사전-사후 점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이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능력이 배양되었으며,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역량이 길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신금란, 2013)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또래상담자의 기본 역량인 공감 및 대화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 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문화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에 대해 갖는 유능감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인 '사회적 기반', '의사소통능력', '이중문화적 신념'도 유의미하게 점수가 향상되

어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자신이 다문화에 속해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속된 문화집단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의 사전-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문화집단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하위요인인 '인지적 관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인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관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더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문화 자기유능감 및 다문화 정체성의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다문화 사회 청소년들이 다문화 유능감을 통해 다문화 사회 적응을 도울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강기정 외, 2011; Patterson, 2007)에 근거하여,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적인 역량을 가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정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자 관점의 평가를 별도 시행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및 회기별 평가 결과, 75% 이상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90%가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프로그램의 목적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0%의 청소년이 목적과 부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75%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이 이해하기에 쉬웠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별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Friendship 단계에 대해서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이번 단계가 도움이 되었고, '또래간의 활동, 역할놀이' 등이 유용하였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밝히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Counselorship 단계에 대해서는 전체의 75% 이상의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이 유익하였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Leadership 단계에 대해서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본 단계가 도움이 되었고, '나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도움이 되는' 단계였음을 응답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먼저, 본

프로그램의 영문명을 교포 사회에서 설득될 수 있는 ‘멘토’ 등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여 더 쉽게 학부모 및 청소년에게 다가갈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대상이 해외 교포 중에서도 이민자, 유학생, 2세인지 등과 나이에 대해서도 명료화 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로,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 내용에 대한 한계와 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비밀보장, 수퍼비전 등 또래상담자 활동 및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명료화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식에 있어 학교를 통해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지침서 안에 제시하여 지도자들이 직접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상의 효과성평가, 참여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해 프로그램 최종안에 대한 수정방향을 수립하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며,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프로그램이 갖는 본래 기본 구성요소는 유지하되 해외 교포 사회 내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고, 또래상담자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들에 대한 사례지도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이 본 프로그램을 원활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와 효과성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지침서 내에 첨부하여 개발을 완료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면접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 결정되었고, 이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개발하는 절차를 통해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먼저 본 연구를 통해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가장 큰 의의는 체계적인 개발절차를 거쳐 해외교포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제 및 또래도움의 필요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청소년 지도자 심층면접을 통해 해외또래상담 청소년의 고민 및 또래상담자 역할 및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이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바, 외국학자들과의 연구협력 및 자문, 외국대학의 IRB 승인 등을 통해 해외교포사회를 포함한 해외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에 보급되는데 있어 실효성 및 현장적응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재미교포 가족상담학분야 학자의 공동연구, 다문화 가족상담학 분야 외국학자의 연구과정에 대한 자문 및 매뉴얼(영어)에 대한 자문, 학교상담분야 외국학자의 학교상담적용에 대한 자문, 외국대학 IRB승인을 통한 시범운영 등을 거침으로써 해외 보급에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있어 주요 수혜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프로그램이 주로 보급될 해외교포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교포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보고된 청소년 고민 사례로 구성되었고, 또래상담자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리더십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급과정에서의 용이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방식도 포함하였으며, 또래상담 지도자 매뉴얼을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개발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웹교재를 영어로 개발하였다. 이때 현장적응성이 높은 영어 지도자 매뉴얼 및 웹교재 개발을 위해 영어 지도자 매뉴얼 및 웹교재 번역은 미국 대학 한국어 교수 및 재미교포 2세 상담심리대학원 전공자에 의해 2차례 번역되었다. 또한 청소년에 적합한 사례 번역을 위해 재미교포 1.5세 청소년이 프로그램 내 사례를 번역하였다.

넷째, 개발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해외교포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상담자로 자질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된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해외교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해외교포 중 재미교포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었기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연구, 시범운영의 대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러한 점에서 미국 외에 다른 지역 해외 교포 청소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도자 대상 안내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운영 전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교육을 매 회기 전에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미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미교포 지도자를 대상으로 안내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해외교포 대상 프로그램의 보급 대상은 해외 교포 사회 및 커뮤니티가 대상이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및 전문지도자(또래상담 지도자를 양성하는 자)를 양성하고 해외교포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교포 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방안 연구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해외교포 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홍보가 필요하다.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해외 현장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지역에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5-22.
- 강주영, 임성택 (2010).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평가연구*, 3(1), 1-14.
- 길예진, 이순형 (1999). 한국 청소년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39-248.
- 김수미, 정경은 (2013). 다문화 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27-49.
- 김승운 (2011). 청소년의 자기긍정 편향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75-108.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노성덕, 김계현 (2004).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3-10.
- 류부열 (2007). 또래상담자 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성준 (2008). 미디어 효과와 문화변용: 시카고 한인타운에서의 미디어 효과와 문화가치. *방송연구*, 여름호, 161-185.
- 미주 YWCA (2004). 전화상담자료집.
- 박보라 (2008). 또래상담자 훈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라 (2008). 이민 2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정체성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6), 438-427.
- 박은정 (2007). 또래상담자훈련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원 (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08-316.

- 변상해, 김세봉 (2011).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1(2), 466-476.
- 소수연, 김경민, 양대희, 안지영,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이현숙 (2013).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신금란 (2013).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가영 (2008).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 경험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서미, 주지선, 김혜영, 전환희, 성벼리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양미진, 송미경, 신효정 (2009).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8-31.
- 오유하 (2009). 또래상담자 유형에 따라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외교부 (2013). 재외동포 현황. www.mofa.go.kr
- 원영희 (2005). 재미교포 노인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일립논총**, 11, 151-178.
- 유채영, 이주경 (2012). 문화적응이 재미교포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3(3), 159-253.
- 윤인진 (2000). 한국이민 가족의 세대 갈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154-181.
- 이남희 (2005). 또래상담자 활동이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단계별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진숙, 테지레 친 (2011).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6), 33-48.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재외동포재단 (2010).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www.korean.net
- 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상담 활동이 따돌림 경험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주는 영향: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2, 1-16.

- 최혜숙 (2006).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 이현림 (2005).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 및 소속 학급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415-433.
- Bernstein, K. S., Park, S. Y., Shin, J., & Park, Y. (2009)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New York Cit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1), 24-34.
- Berry, J.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uck, M. R. (1977). Peer counseling from a black perspectiv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2), 107-113.
- Caskey, M. (2010). "I Feel Like I'm Safe Again:" A discussion of middle grades organizational struc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nt youth and their teacher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33(9), 1-14.
- Choi, G. (199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 81-97.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11-22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mpany.
- Fong, R. (2004).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with immigrant and refugee children and familie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mburg, A., & Varenhorst, B. (1972). Peer counseling in the secondary schools: A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 for you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2(4), 566-581.
- Heiselt, A. K., & White, E. M. (2008). Away from the margins: Peer counselors and students of color. *Perspectives in Peer Programs*, 21(1), 21-26.
- Hurh, W. M., & Kim, K. C. (1990).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703-711.

- Jang, Y., Chiriboga, D. A., & Okazaki, S. (2009).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Age-group differences in Korean American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3*(1), 127-134.
- Kim, S. R. (1994). *Ethnic Identity, Attribute Factor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merica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 Kuo, W. H. (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 449-457.
- Lee, H., Moon, A., & Knight, B. G. (2004).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Exploring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13*(4), 1-26.
- Mamarchev, H. L. (1981). Peer Counseling. Searchlight Plus: Relevant Resources in High Interest Areas. No. 52+.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211904.pdf>
- Miller, A. M., & Chandler, P. J. (2002). Acculturation,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midlife wom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Nursing Research, 51*, 26-32.
-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2014). About Mentor. Retrieved from http://www.mentoring.org/about_mentor
- Noh, S., & Avison, W. R. (1996).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7*(2), 192-207.
- Park, H. S., & Rubin, A. (2012). The mediating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level and depress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 611-623.
- Park, S. Y., & Bernstein, K. S. (2008). Expression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2*(1), 12-19.
- Patterson, K. (2007). The new face of leadership: A global emergence in the marketplace. *숙명 리더십 연구, 5*(1), 87-102.
- Phinney, J. S. (1996). When We Talk About American Ethnic Groups, What Do we Mean?. *American Psychologist, 51*(9), 918-927.
- Phinney, J. S., & Char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5*, 271- 281.

- Portes, A., & Rumbaut, R. G. (199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심리학. 정영숙 · 신민섭 · 이승연(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년 원저 발간).
- Rosenthal, D., & Hrynevich, C. (1985). Ethnicity and ethnic identity: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Italian-, and Anglo-Australi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 723-742.
- Schineller, K., & Rummell, C. (2011). *Mentori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A Toolkit for Program Coordinators*. VA: MENTOR.
- Shea, M., & Yeh, C. (2008). Asian American students' cultural values, stigma, and relational self-constru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0(2), 157-172.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ue, S., Cheng, J., Saad, C. S., & Chu, J. P. (2012). Asian American mental health: A call to action. *American Psychologists*, 67(7), 532-544.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 S. Census Bureau. (2010). Overview of race and Hispanic origin: 2010.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02.pdf>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10).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A Report on Current Practices.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508138.pdf>
- Yeh, C. J., & Hwang, M. (2000). Interdependence in ethnic identity and self: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420-429.

부록

1.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지
 2. 해외교포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사후)
 4. 프로그램 평가지
 5. 연구 참여 동의서(보호자용)
 6.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

[부록 1]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지

해외교포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심층면접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졸업 ② 학사재학 ③ 학사졸업 ④ 석사재학 ⑤ 석사졸업 ⑥ 박사 이상

5. 귀하가 현재 근무하시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 ① 청소년유관기관 ② 학교 ③ 종교단체 ④ 상담소 ⑤ 기타()

6. 귀하는 교포청소년을 연구한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7. 귀하가 주로 연구한 교포청소년은 어느 연령대입니까?

-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기타()

8. 귀하의 미국 체류기간은?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⑦ 없음

[도입 질문]

1. 귀하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청소년은 누구인가요?
2. 귀하의 문화적 orientation은 어느 국가인가요?

[주요 질문]

3. 귀하가 연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3-1. 교포청소년은 주로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나요?

3-2. 만약 귀하가 교포청소년 이외의 청소년(타문화, 비교포 청소년 등)들을 연구해본 경험이 있다면, 주로 연구하는 청소년과 이외의 청소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3. 미국교포청소년들은 민족정체성이나 문화적응과 관련한 고민을 하나요?

4. 교포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길 때, 주로 어떤 누구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나요?

5. 귀하가 연구하는 청소년에게 또래가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5-1. 또래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5-2. (선택) 또래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6.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6-2. 또래상담자가 될 청소년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내용, 소요시간, 참여인원, 집단형태, 교구제 등 현장적용과 관련한 부분)

[마무리 질문]

8.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록 2] 해외교포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해외교포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질문지)

[서면보고]

* Read each question and check ✓ for applicable items or describe in detail.

1. Age ()
2. Gender a. male b. female
3. Grade in School ()
4. Were you born in USA a. Yes b. No
- 4-1. If no, how old were you when you came to USA? ()
5. In which city and state did you spend most of your childhood? ()
6. How long have you been in USA? ()
7. What percentage of students at your school is Korean-American?
a. Less than 1% b. 1%-10% c. 10%-25% d. 25%-50% e. Greater than 50%
8. What is your father's ethnic origin? ()
9. What is your mother's ethnic origin? ()
10. Are you currently involved in any Korean organizations?(i.e. Korean Church, Korean Students Association, Korean School)
a. Yes b. No
- 10-1 If yes, what is (are) the organizations(s)? ()
11. How well do you speak, read and write Korean?
a. Not at all b. Poorly c. Somewhat d. Fluently
12. How well do you speak, read and write English?
a. Not at all b. Poorly c. Somewhat d. Fluently
13. What is the primary language spoken in your family house hold?
a. Only Korean
b. Korean and English but dominantly Korean
c. Korean and English equally
d. Korean and English but dominantly English
e. Only English

12. Family information

relationship	Age	Living together?	Religion	Years in USA

13. How would you describe your family of origin?

- a. Very traditionally Korean
- b. More traditionally Korean than Americanized
- c. Equally Korean and American
- d. More Americanized than traditionally Korean
- e. Very Americanized

14. How would you describe yourself?

- a. Very traditionally Korean
- b. More traditionally Korean than Americanized
- c. Equally Korean and American
- d. More Americanized than traditionally Korean
- e. Very Americanized

14-1. Describe reasons why you choose the answer above. ()

15. Have you ever felt that your own culture i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American culture? a.
Yes b. No

15-1. If yes, then what occasions have you felt so?

(FGI 질문)

1-1. What do you think the main worries or stressors kids of your age have?

1-2. What worries or stressors have you experienced?

2-1. Do the above mentioned worries or stressors relate to any kind of cultural differences or identity issues? If yes, how do they relate?

2-2. Have you ever felt stressed about adjusting to a new cultural identity?

If yes, please explain or elaborate.

2-3. Have you ever seen any Korean-American friends have troubles or concerns with regards to cultural adjustment or cultural identity issues?

3-1. How does it feel to live in American culture as a person who is raised under Korean parents? Have you ever felt any conflict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4-1. When there are such conflicts, how do you resolve them?

4-2. What kinds of support(s) did you get from outside of your family when you were in such conflicts?

4-3. In resolving conflicts, how do your peers who have the same culture influence you? (You can skip 4-4 or 4-5, if you have answered in detail in 4-3)

4-4. Have you ever received any support from your friends, especially from Korean or Korean-American friends?

4-5. If there was an opportunity when you could help others, how did you help? And what were the circumstances?

[부록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사후)

Date: _____ DOB: _____ (month/date/year)

* Read each question and check for applicable items or describe in detail.

1. Age (_____)
2. Gender a. male b. female
3. Grade in School (_____)
4. Were you born in USA a. Yes b. No
- 4-1. If no, how old were you when you came to USA? (_____)
5. In which city and state did you spend most of your childhood?
(_____)
6. How long have you been in USA? (_____)
7. What percentage of students at your school is Korean-American?
a. Less than 1% b. 1%–10% c. 10%–25% d. 25%–50% e. Greater than 50%
8. What is your father's ethnic origin? (_____)
9. What is your mother's ethnic origin? (_____)
10. Are you currently involved in any Korean organizations?
(i.e. Korean Church, Korean Students Association, Korean School)
a. Yes b. No
- 10-1. If yes, what is (are) the organizations(s)?
(_____)
11. How well do you speak, read and write Korean?
a. Not at all b. Poorly c. Somewhat d. Fluently
12. How well do you speak, read and write English?
a. Not at all b. Poorly c. Somewhat d. Fluently
13. What is the primary language spoken in your family house hold?
a. Only Korean
b. Korean and English but dominantly Korean
c. Korean and English equally
d. Korean and English but dominantly English
e. Only English
12. Family information

relationship	Age	Living together?	Religion	Years in USA

※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Please answer each statement as carefully as possible. Please circle one of the numbers to the right of each statement to indicate your degree of agreement or disagreement.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1	I often have tender, concerned feelings for people less fortunate than me.					
2	I sometimes find it difficult to see things from the "other guy's" point of view.					
3	Sometimes I don't feel very sorry for other people when they are having problems.					
4	I try to look at everybody's side of a disagreement before I make a decision.					
5	When I see someone being taken advantage of, I feel kind of protective towards them.					
6	I sometimes try to understand my friends better by imagining how things look from their perspective.					
7	Other people's misfortunes do not usually disturb me a great deal.					
8	If I'm sure I'm right about something, I don't waste much time listening to other people's arguments.					
9	When I see someone being treated unfairly, I sometimes don't feel very much pity for them.					
10	I am often quite touched by things that I see happen.					
11	I believe that there are two sides to every question and try to look at them both.					
12	I would describe myself as a pretty soft-hearted person.					
13	When I'm upset at someone, I usually try to "put myself in his shoes" for a while.					

14	Before criticizing somebody, I try to imagine how I would feel if I were in their place.					
----	--	--	--	--	--	--

※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

Please answer each statement as carefully as possible. Please circle one of the numbers to the right of each statement to indicate your degree of agreement or disagreement.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1	I can count on both mainstream Americans and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2	I can develop new relationships with both mainstream Americans as well as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3	I feel comfortable attending a gathering of mostly mainstream Americans as well as a gathering of mostly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4	I have strong ties with mainstream Americans and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5	I have an extensive network of mainstream Americans as well as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6	I feel like I fit in when I am with mainstream Americans as well as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7	I can communicate my ideas effectively to both mainstream Americans as well as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8	I can communicate my feelings effectively to both mainstream Americans as well as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culture as myself					

9	I am proficient in both standard English and the language of my heritage culture					
10	I can switch easily between standard English and the language of my heritage culture.					
11	I have generally positive feelings about both my heritage culture and mainstream American culture.					
12	I have a generally positive attitude toward both mainstream Americans and my cultural group.					
13	I have respect for both mainstream American culture and my heritage culture.					
14	I have pride in both the mainstream American culture and my heritage culture.					
15	An individual can later his or her behavior to fit a particular social context					
16	I can choose the degree and manner by which I affiliate with each culture.					
17	I am confident that I can learn new aspects of both mainstream American culture and my heritage culture					
18	It is acceptable for an individual from my heritage culture to participate in two different cultures.					
19	It is acceptable for a mainstream American individual to participate in two different cultures.					
20	Being bicultural does not mean I have to compromise my sense of cultural identity					
21	It is 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in two cultures without compromising his or her sense of cultural identity					

※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

In this country, people co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words to describe the different back-grounds or ethnic groups that people come from. Some examples of the names of ethnic groups are Hispanic or Latino, Black or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Chinese, Filipino, American Indian, Mexican American, Caucasian or White, Italian American, and many others. These questions are about your ethnicity or your ethnic group and how you feel about it or react to it.

Please fill in: In terms of ethnic group, I consider myself to be _____

Use the numbers below to indicat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statement.

-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Agree (4) Strongly agree

- 1- I have spent time trying to find out more about my ethnic group, such as its history, traditions, and customs. ()
- 2- I am active in organizations or social groups that include mostly members of my own ethnic group. ()
- 3- I have a clear sense of my ethnic background and what it means for me. ()
- 4- I think a lot about how my life will be affected by my ethnic group membership. ()
- 5- I am happy that I am a member of the group I belong to. ()
- 6- I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my own ethnic group. ()
- 7- I understand pretty well what my ethnic group membership means to me. ()
- 8-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my ethnic background, I have often talked to other people about my ethnic group. ()
- 9- I have a lot of pride in my ethnic group. ()
- 10- I participate in cultural practices of my own group, such as special food, music, or customs. ()
- 11- I feel a strong attachment towards my own ethnic group. ()
- 12- I feel good about my cultural or ethnic background. ()

[부록 4] 프로그램 평가지

Program Evaluation

Greeting to everyone!

Korean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is a government owned department that is responsible for overall Korean youth counseling. We provide counseling, research and education to aid adolescents to grow up in happiness and in healthy manner.

This questionnaire is to once again understand how you think about the program for Korean adolescents who are living in overseas. This is to clarify and understand more about your thoughts and I would highly respect your cooperation. Thank you.

1. Are you overall satisfied with the program about the training you had?
①very satisfied ②satisfied ③average ④dissatisfied ⑤extremely dissatisfied
2. Was the program easy to understand?
①very easy ②easy ③average ④difficult ⑤very difficult
3. Were you satisfied with being involved with the program?
①very satisfied ②satisfied ③so-so ④dissatisfied ⑤extremely dissatisfied
4. Do you think the program is well designed for its purpose?
①extremely well made ②well made ③average ④poor ⑤extremely poor
5. Do you think the program was personally helpful to you?
①very helpful ②helpful ③average ④not helpful ⑤not helpful at all
6. Do you want this program to be used for other peer Korean adolescents who are living in overseas?
①highly recommend ②recommend ③not sure ④not recommend ⑤never
7. Would you recommend your friends to join this program and training?
①yes ②no

Evaluation for Program sessions

	very helpful	helpful	average	not helpful	not helpful at all	session evaluation (please feel free to write about your thoughts)
Friendship education session						
Friendship activity session						
Counselorship education session						
Counselorship activity session						
Leadership education session						
Leadership activity session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보호자용)

INFORMED CONSENT FOR PARENTS¹⁾

Solian, Peer Helpers Program: Empowering youth of immigrant families

Investigators:

Hee-Sun Cheon, Assistant Professor, Seattle Pacific University, 206-281-2251, cheon@spu.edu

Seo Mi,

List Principal Investigator first followed by all others who will collect data from participants- give title, phone and e-mail for PI and others. If the PI is a student, the faculty / staff sponsor must be listed as a Co-investigator with contact information.

PURPOSE

Your child is invited to take part in a research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olian Peer Helpers (SPH) program, and test its effectiveness. The SPH intends to help Korean-American youth of immigrant families as supportive and competent leaders who are capable of assisting other peers in needs. Your child has been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because (s)he is a Korean-American adolescent of immigrant families, aging 14 to 18. The number of people that will be part of this research is 12.

PROCEDURES

Once you and your child decid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he/she will be asked to participate in the Solian Peer Helpers program. The entire program will take about 9 hours, and will be divided into three 3-hour sessions so your child's learning can be maximized. Each session will be offered weekly for three weeks at local community center.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PH program, you will be invited to the parents' meeting. This meeting will last about one hour and will be offered at the same location and the same time the first SPH session is offered. Your child will be asked to fill out some questionnaires in order to measure the program's impact on your child (e.g.,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cultural competence). The entire assessments will take about 20 minutes and your child will be asked to fill them out at three poi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three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RISKS and DISCOMFORTS

The potential risk of the study is minimal. The interpersonal activities (e.g., role-play) during the program may cause some discomfort for your child. However, if he/she experiences any discomfort, he/she will have right to decide not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ies at any time. Also, he/she will have debriefing time to process the discomfort.

In case your child needs further assistance, we will provide you and your child with a list of counselors who can help him/her process the issues that may have surfaced while participating in this study.

BENEFITS

We do not anticipate direct benefits; however, participating individuals will gain insights into their cultural identity and practice various interpersonal skills such as active listening, and empathic perspective taking skills. These insights and skills will assist your child to better communicate with other family members and peers.

Also,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is peer-centered program will foster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group members.

PARTICIPATION AND ALTERNATIVES TO PARTICIPATION

Your child's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he/she may decline to participate without penalty. If your

child decides to participate, he/she may withdraw from the study at anytime without penalty and without loss of benefits to which your child is otherwise entitled. If your child withdraws from the study before data collection is completed, the data of your child will be returned to you or destroyed²⁾. Likewise, the Researcher may terminate your child's participation in the study at any time.

EMERGENCY MEDICAL / PSYCHOLOGICAL TREATMENT

Seattle Pacific University does not offer to reimburse participants for medical claims or other compensation. If physical injury is suffered in the course of research, o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notify the investigator in charge, (insert the name of the researcher and their contact info.).

CONFIDENTIALITY

The information in the study records will be kept confidential. Data will be stored securely and will be made available only to persons conducting the study unless you specifically give permission in writing to do otherwise. No reference will be made in oral or written reports that could link your child to the study. Your child's de-identified data may be used in future research, presentations or for teaching purposes by the Principal Investigator listed above.

SUBJECT RIGHTS

If you have questions at any time about the study or the procedures, (or your child experience adverse effects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this study,) you may contact the Principal Investigator, [(insert the name of the researcher and their contact info.).

If you have questions about your child's rights as a participant, contact the SPU Institutional Review Board Chair at 206-281-2201 or IRB@SPU.edu .

CONSENT

Your signature on this form indicates that you have understood to your satisfaction the information regarding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project and give permission for your chil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In no way does this waive your child's legal rights nor release the investigators, sponsors, or involved institutions from their leg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 have read the above information and agree my chil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I have received a copy of this form.

Name of Participant's Parent/Legal guardian (print) _____	Researcher's _____ name _____ (print)
Signature of Participant's Parent/Legal guardian _____	Researcher's _____ signature
Date _____	Date _____

Copies to: Participant Principal Investigator

1) See instructions at end of this document.

2) Note that electronically collected data through Survey Monkey is automatically destroyed if participants do not complete the entire survey

[부록 6]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INFORMED ASSENT FOR ADOLESCENTS 3)

Solian, Peer Helpers Program: Empowering youth of immigrant families

Investigators:

Hee-Sun Cheon, Assistant Professor, Seattle Pacific University, 206-281-2251, cheon@spu.edu,

Seo Mi,

List Principal Investigator first followed by all others who will collect data from participants- give title, phone and e-mail for PI and others. If the PI is a student, the faculty / staff sponsor must be listed as a Co-investigator with contact information.

PURPOSE

You are invited to take part in a research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olian, Peer Helpers (SPH) program, and test its effectiveness. The SPH intends to help you grow as a supportive and competent leader who is capable of assisting peers in needs. You have been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because you are Korean-American adolescents of immigrant families, aging 14 to 18. The number of people that will be part of this research is 12.

PROCEDURES

Once you decid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you will be asked to participate in the Solian Peer Helpers program. The entire program will take about 9 hours, and will be divided into three 3-hour sessions so your learning can be maximized. Each session will be offered weekly for three weeks at local community center. You will be asked to fill out the assessments at three poi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three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 assessments will take about 20 minutes.

RISKS and DISCOMFORTS

The potential risk of the study is minimal. The interpersonal activities (e.g., role-play) during the program may cause some discomfort for you. However, if you experience some discomfort, you will have right to decide not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ies at any time. Also, you will have debriefing time to process your discomfort. In case you need further assistance, we will provide you with a list of counselors who can help you process the issues that may have surfaced while participating in this study.

BENEFITS

We do not anticipate direct benefits; however, participating individuals will gain insights into their cultural identity and practice various interpersonal skills such as active listening, and empathic perspective taking skills. These insights and skills will assist you to better communicate with your family members and peers. Also,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is peer-centered program will foster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group members.

PARTICIPATION AND ALTERNATIVES TO PARTICIPATION

You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 may decline to participate without penalty.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may withdraw from the study at anytime without penalty and without loss of benefits to which you are otherwise entitled.

If you withdraw from the study before data collection is completed, your data will be returned to you or destroyed⁴). Likewise, the Researcher may terminate your participation in the study at any time.

EMERGENCY MEDICAL / PSYCHOLOGICAL TREATMENT

(For research involving more than minimal risk add here) Seattle Pacific University does not offer to reimburse participants for medical claims or other compensation. If physical injury is suffered in the course of research, o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notify the investigator in charge, ((insert the name of the researcher and their contact info.)).

CONFIDENTIALITY

The information in the study records will be kept confidential. Data will be stored securely and will be made available only to persons conducting the study unless you specifically give permission in writing to do otherwise. No reference will be made in oral or written reports that could link you to the study.

Your de-identified data may be used in future research, presentations or for teaching purposes by the Principal Investigator listed above.

SUBJECT RIGHTS

If you have questions at any time about the study or the procedures, (or you experience adverse effects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this study,) you may contact the Principal Investigator, [(insert the name of the researcher and their contact info.)].

If you have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participant, contact the SPU Institutional Review Board Chair at 206-281-2201 or IRB@SPU.edu .

CONSENT

Your signature on this form indicates that you have understood to your satisfaction the information regarding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project and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In no way does this waive your legal rights nor release the investigators, sponsors, or involved institutions from their leg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 have read the above information and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I have received a copy of this form

Participant's name (print) _____	Researcher' s name (print) _____
Participant's signature _____	Researcher' s signature _____
Date _____	Date _____

3) See instructions at end of this document.

4) Note that electronically collected data through Survey Monkey is automatically destroyed if participants do not complete the entire survey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Korean Youth Living Abroad

As the number of Korean immigrants increases, it has been reported that more than seven million Koreans live abroad as of 2013. Immigrants experience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including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identity crisis as they adjust to a new life style of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Young immigrants are not exceptional. In particular, those who are born in an emigrated country experience confusion between their parents' culture and the culture they live in. Furthermore, young immigrants have difficulties establishing healthy self-esteem as they are usually exposed to negative points of view as a minority.

In this regard, there begins some movements to successfully deal with mental health issues of the young immigrants by forming a community where people from a similar background can listen to one another and create their own networking channel.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in this manner,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dealing with emotional difficulties of immigrated youth since peers can be the most significant supporter during the adolescence. The program has already been proved by numerous researches conducted in Korea to be effective in various areas, such as improving self-esteem, social and communication skills. It is also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venting the maladjustment problems and promoting competence in living in a new culture by spending time and communicating with peers from a similar 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role-model-based program of peer counseling to reduce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to enhance multicultural competence in young immigrants.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has been developed in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of all, the objectives/goals of the Program were set and the precedent studies on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from Korean-American families as well as the peer counseling program in and out of the country were investigated. Then, focused group interviews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argeting the Korean-American youths and the youth professionals who have teaching experiences with the youth population. Secondly, in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program, the first draft was written based on the components and principles of the previously analyzed resources. Lastly, the test operation of the first draft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Feedback from the participants and their trainers as well as supervision from the professionals were also collected and reflected in modification and finalization of the program.

The constituting principles of the program are as follows. The program highlighted the three roles of a peer counselor derived from an existing peer counseling program. Then it focused on building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of peer counselors. Third of all, the education program on the three roles of peer counselors were centered on central issues that the young immigrants generally experience. In addition, both online and offline training were developed for an easy access. Fifthly, training was conducted by the mentors, and the activity part was based on that of the existing peer counseling program. Finally, each stage of the program was designed for the peer counselors to actually practice in reality.

The test operation of the program was conducted to twenty Korean-American adolescents; pre-test and post-test were conducted, having a controlled group to accurately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results from the Paired T-Test indicate that there are a statistically meaningful change in the following areas: interpersonal reactivity, bicultural self-efficacy and multi-group ethnic identity. Moreover, 90 percentage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ould like to recommend the program to their friends and 75 percentage of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 overall program by writing their comments on the session and overall evaluation. The results and the comments on the evaluation were analyzed and the program was reviewed by professionals; then, the program was modified and finalized.

According to the previously mentioned results,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is practical and beneficial to deal with maladjustment problems of young immigrants and to support them to grow in a healthier way.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program can be distributed not only to immigrant communities but to local schools as it even received an IRB approval from a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to spreading the program to many countries, the effects of the program targeting the young immigrants residing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SA should also be proven. Furthermore, collaborations among the government departments, community and scholars will be necessary to implement this program all over the world.

